

6월 호국 · 보훈의 달

새로 쓰는 평택 3·1운동 학술회의

장 소 _ 평택시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3층)

일 시 _ 2012년 6월 8일(금) 15:00~18:00

주최/주관 _ 평택향토사연구소

후 원 _ 국가보훈처, 평택시, 평택문화원,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6월 호국·보훈의 달

새로 쓰는 평택3·1운동 학술회의

- 장 소 : 평택시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3층)
- 일 시 : 2012년 6월 8일(금) 15:00~18:00
- 주최/주관 : 평택향토사연구소
- 후 원 : 국가보훈처, 평택시, 평택문화원,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진행순서

○ 제1부 의식행사

개회 - 국민의례

개회사 - 평택향토사연구소장

축사 - 지역사회 각계인사

○ 제2부 학술회의

사회 - 박성복(평택향토사연구위원)

① 제1주제 -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발표 - 박철하(수원대학교 강사)

토론 - 김방(국제대학교 교수)

② 제2주제 - 평택지역 3·1운동의 재검토와 전개 양상

발표 - 성주현(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토론 - 김인덕(청암대학교 교수)

③ 제3주제 - 안재홍의 '기미운동'과 '임정법통성'의 역사의식

발표 - 김인식(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 김형목(독립기념관 상임연구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박철하(수원대학교 강사)

평택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박철하(수원대학교 강사)

목차
머리말
1. 평택지역의 사회·경제적 변동
2. 평택지역 식민통치기구의 설치
3. 평택지역의 항일구국운동과 근대교육
1) 항일구국운동
① 동학농민운동과 천도교
② 항일의병운동
③ 국채보상운동
2) 평택지역의 초기 근대교육 현황
맺음말

머리말

평택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3월 9일 현덕면 옥너봉에서 있었던 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진위군 관내 북면, 서탄면, 송탄면, 고덕면, 병남면, 청북면, 오성면, 부용면, 포승면, 현덕면 등 서면을 제외한 10개 면에서 15차례에 걸쳐 연 인원 5,800여 명이 참여했다.

투쟁양상에 있어서 초기에는 비폭력적으로 전개되었으나 3월 말 이후 폭력화 양상이 뚜렷했다. 이와 더불어 일제의 헌병과 경찰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3.1독립만세운동 과정에서 257명이 체포되었으며, 인명피해로는 사망 64명, 부상 174명이었다.

평택역 및 평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병남면 지역에서는 지식인과 상인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또한 인근의 평택공립보통학교 학생들도 적극 참여했다. 천도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현덕면과 북면에서는 천도교인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고 대거 참여했다.

이와 같이 평택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은 당시 평택지역이 갖는 역사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동안 평택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연구성과가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평택3.1 독립운동사』(평택시, 1977), 『평택시항일독립운동사』(평택시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4) 등의 단행본과 함께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2011), 김방, 「평택지방의 3.1독립만세운동」(2008) 등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평택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사회경제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은 일천하다. 최근 성주현, 서태정 등이 평택지역의 천도교 및 근대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본 발

표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평택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사회경제적, 역사적 배경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이를 시작으로 평택지역 독립만세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특징을 밝혀낼 수 있도록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

1. 평택지역의 사회·경제적 변동

1905년 경부선의 개통은 평택지역의 급격한 변화를 주도하였다. 철도부설은 유통구조의 변화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후기 대적인 장시의 하나인 안성장은 경부선 개통과 함께 위축되었다. 철도 개통은 상품유통구조를 철도 중심으로 개편시켰다. 평택은 철도로 운반되어 온 상품들을 주변시장을 공급하는 상업중계지 역할을 담당했다.¹⁾

1910년대 평택역은 진위군청 소재지에 있으며, 경기도와 충청도의 교차점에 해당한다. 드넓은 평야로 농산물이 풍부하고 아산만에 아주 가까우며, 안성과 둔포에 이르는 대로가 있어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도 편리한 곳이 되었다. 또한 서정리역은 송탄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역으로 진위장, 안중장, 양성장이 가깝다. 또한 진위천 하류에 약 100석을 선적한 범선이 들어설 수 있는 선착장도 있으며, 특히 하류쪽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미개간지가 있어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²⁾

1910년대에 평택역과 연결되어 평택장과 안성장, 둔포장이 있었다. 안성과 둔포장은 조선후기 이래 열리던 장이고, 평택장은 철도역 설치 이후 기존 소사장을 역 앞으로 이전하여 개설한 시장이다.³⁾ 평택역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가 형성되면서 정적인 안성시장과 둔포시장으로 모이던 상품들이 두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평택으로 통해 유통되었다. 특히 평택역을 중심으로 미곡상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14년 평택역 주요 상점으로 미곡상의 경우 일본인 4명, 조선인 15명이 집중해 있었다.

일본인들은 평택지역에서 농업관련 대부업과 미곡수출 회사를 운영하였다. 1913년에 일본인 회사로 진위흥농(振威興農) 주식회사가 진위군 서탄면 금암리 28번지에 설립되었다. 대표자는 일본인 심전여삼병위(深田與三兵衛)라는 사람이다. 흥농회사는 토지개간, 경작, 식수 및 부대사업을 비롯해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고, 농사에 필요한 가축을 기르거나 매매하고 농산물 매매업 등을 하였다. 사장을 비롯해 이사와 감사 모두 일본인이었다.⁴⁾ 진위흥농 주식회사는 1935년 7월 경 해산되었다. 회사 소유 448,000평의 토지는 200여 명이 소작인에게 불하하기로 했다.⁵⁾

1917년 말 평택을 중심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미곡수출상회 조직도 추진되었다. 1주에 100원으로 하여 1천 주를 계획하여 “상업을 개선하여 공중에 이익을 기도하고 신용을 確守하여 업무를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였다.⁶⁾

19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평택지역의 인구구성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인 인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1910년대 초반까지 평택역 주변 전체 주민의

1)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2011.12.1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제160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2)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성관리국, 『조선철도여행안내』, 1918, 40~41쪽

3) 허영란, 「1910년대 경기남부지역 상품유통구조의 재편」, 『역사문제연구』2, 역사문제연구소, 1997, 173쪽

4) 中村資良 編, 『朝鮮銀行會社要錄』(東洋經濟新報社), 1921. 96쪽

5) 『동아일보』 1935년 7월 3일

6) 『매일신보』 1917년 12월 5일

50%에 달했던 일본인 인구도 조선인에 미치지 못했지만 급증하였다. 인구구성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1910년대 후반 평택지역 인구구성 변화양상>

구분	일본인		조선인		총계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호수	인구수
1915	170	562	9,967	55,127	10,156	55,738
1917	189	652	10,279	57,564	10,490	58,290

*출전: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6월 16일;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8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의 인구구성>7)

구분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합계
1916	1,363	411	43	1,817
1917	1,580	442	55	2,077
1918	1,977	511	47	2,535
1919	2,252	454	38	2,744

1917년 현재 진위군 내 농업호수의 비율을 보면, 전업자가 8,721호, 겸업자가 901호였다. 이를 보다 분화 하면, 지주:자작:소작:자작겸소작=173:365:4,333:3,751이었다.⁸⁾ 즉 소작 및 자작겸 소작인이 전체 농업호수의 95%에 가까웠다. 평택지역의 일본인 농업자 수는 31호에 149명이었다. 당시 일본인 농업자는 지주 또는 자작농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평택지역의 조선인들의 삶은 고됐다. 병남면 유천리 거주 신복돌(申福堧, 27세)은 남에게 빚이 있어 매일 걱정하다가 남의 소를 훔쳐 평택시장에서 15원에 팔아 갚았다가 진위경찰서에 발각되기도 하였다.⁹⁾ 특히 1917년과 1918년 평택지역의 경제는 매우 좋지 않았다. 당시 진위에는 곡물영업자가 400여 명에 달하여 금전유통이 넉넉한 듯 했으나 실제로는 연말에 각 미곡상점과 포목상점 등 기타 상점들의 금전유통이 곤경에 빠졌고, 보조화도 결핍되어 물품매매가 쉽지 않았다.¹⁰⁾ 더욱이 1918년 여름에는 홍수를 맞아 일반 농작물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¹¹⁾

평택역을 중심으로 평택지역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조선인과 일본사이의 대립 양상들이 나타났다. 이는 경부철도 부설과정에서부터 보이고 있다. 경선 철도가 부설되는 과정에서는 일인과 부일배에 대한 철도건설 노동자들의 대립이 자주 발생했다. 진위군에서는 일본인이 매호 1인씩 역부를 뽑아달라고 요청한 것을 빌미로 이방이 중간에 협잡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1904년 8월 군민이 봉기하여 향청과 이서배의 가옥 7호를 파괴하기도 했다.¹²⁾

이러한 양상은 3.1운동 시기에서도 보이고 있다. 안성군 원곡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4월 1일에 있었던 안성지역 독립만세운동 중에 당시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의 박용업을 비롯한

7) 허영란, 앞의 글, 184쪽에서 재인용

8)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8

9) 「빛에 물려 도적질」, 『매일신보』, 1917년 8월 9일

10) 「진위, 연말경제상황」, 『매일신보』, 1917년 12월 28일

11) 「진위, 농작상황」, 『매일신보』, 1918년 7월 16일

12) 『대한매일신보』 1904년 8월 25일.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259~261쪽. 이와 같은 양상으로 대대적인 항거가 시흥군에서 일어났다. 43개 동에서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당시 잡화점을 운영하는 일본인의 집에 돌을 던지고, 집 안의 가구 등에 불을 질렀다.¹³⁾ 또한 대금업자의 집으로 몰려가서 서류를 들고 나와 불태웠다.¹⁴⁾

비록 3.1운동이 일어난지 3년 뒤의 일이지만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대립의 극단적 양상이 1922년 진위군 병남면 동삭리에서 표출되었다.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언어불통에 따른 감정 대립으로 출발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결국 주민들에 의해 일본인이 타살되기도 하였다.¹⁵⁾

철도연선에서 철도와 군사시설에 대한 의병들의 공격도 빈번했다. 1907년 9월에는 병점역에서 30리 떨어진 생장동에서 의병 700명이 모여 오산역과 진위역을 습격하기도 했다. 이는 철도역이 곧 물자가 밖으로 나가는 곳이자 역 부근에 일본인 관리나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철도역을 중심으로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침여한 민족모순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2. 평택지역 식민통치기구의 설치

일제 식민통치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기구인 조선주차 일본군이었다. 이러한 무장군대의 상비적 폭력을 배경으로 의병운동을 진압하고, 3.1운동 시기 강력한 무력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의병투쟁이 고조되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대규모 ‘토벌작전’을 벌였다. 의병투쟁을 진압한 이후에도 일본은 분산 배치되어 있던 수비대를 각 지방에 재배치하고, 1915년에는 조선에 2개 사단의 증설안을 확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병경찰기구 또한 식민지배 안정을 주요 지배기구 역할을 담당했다. 처음에 육군 통신기관의 경호와 연선 치안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헌병대는 러일전쟁 중 주차헌병사령부가 창설되자 그 휘하에 들어갔다. 헌병대는 점차 군용 전신전화, 철도보호, 방역어무 이외에도 일반 경찰업무도 취급하였다. 1907년 이후에는 한일경찰을 일원화시킨 뒤 주차헌병을 통감에 직속시키는 등 전국의 경찰권을 장악했다. 한일합병 이후에는 헌병경찰이 행정, 사법 기타 잡무에까지 거의 모든 지배정책의 수행에 관여했다.¹⁶⁾

강제 합병 이후 헌병경찰 수는 물론 각도에 한 개씩 설치된 분대 이외에 분견소, 파견소, 출장소 등도 해마다 증가했다. 1918년 9월말 현재 헌병대 1,048개, 인원 8,054명, 경찰관서 738개, 인원 6,287명의 규모가 되었다. 점차 보통경찰보다 헌병경찰의 비중이 더 커져 갔다.

특히 헌병 분대장에게는 관할 구역 내에서 즉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이 부여되었고, 구류·태형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마음대로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동시에 봉건적인 태형이 부활되어 경범죄에 적용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인의 피해는 막심하게 되었다.

13) 『朴龍業 신문조사』(1919.5.9 안성경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23)』, 국사편찬위원회, 1997

14) 『李承益 신문조사』(1919.5.4),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23)』, 국사편찬위원회, 1997

15) 『동아일보』 1922년 2월 25일, 3월 2일.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振威郡 東面 平澤里 居住 日本人 中根方光(31歲)은 昨23日 밤중에 振威郡 丙南面 東朔里 金敎弼 집에 들어와 自己 親舊의 집을 물었으나 言語 不通으로 서로 紛爭이 생겼는데 24日 午前 1時半頃 中根方光은 不問曲直하고 金敎弼을 現場에서 때려 죽이고 金敎弼의 長男 金漢東이 덤비는 것을 또 現場에서 打殺한 다음 金敎弼의 親兄 金成五와 옆집 閔京鎬(63歲) 閔敬奉(23歲, 閔京鎬의 長男) 및 閔京鎬의 妻 姜姓女(54歲) 등 여러 사람이 現場에 달려들어 制御하려 하는 것을 閔京鎬와 그의 家族 2名을 打殺하고 金成五를 負傷시켰는데 그는 다시 洞里 人家에 放火까지 하자 이에 激憤한 洞里사람 金大汝를 비롯한 百餘名의 群衆은 마침내 日人 中根方光을 打殺하다.”

16) 『3.1민족해방운동연구』,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1989, 87~91쪽

경찰의 조직을 살펴보면 경찰통감부 밑에 직할 경찰서와 각 도 경찰부가 있고 직할 경찰서 밑에는 고등경찰과·서무과·경무과·보안과·위생과 등 5개 과가 있었다. 이중 고등경찰과는 기밀계와 도서계를 두었는데 기밀계는 사찰 이외에 집회·결사·암호·대중운동·단체 등을 마음대로 수색할 수 있었고 도서계는 신문·잡지·출판물·저작물 등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면서 항일운동을 고취시키는 일체의 활동을 탄압하였다.

일제는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의병전쟁이 격렬해지면서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본군 수비대 배치를 강화했다. 1908년 5월 일본군 수비대의 주력주둔지로 하여 충주수비구 관내 보병 제23연대 본부를 수원에 두었다. 평택지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성환·조치원·충주 등지에 각각 보병 1중대씩 배치하고, 양지·장호원·여주 등지에 보병 1소대씩, 그리고 진위·안성 등지에 보병 1분대씩을 배치했다. 평택과 진위지역에 의병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성환수비대와 수원수비대에서 일본 병사들이 직접 출병하였다. 이후 점차 의병전쟁의 영향을 덜 받게 되면서 주력부대의 주둔지는 김화와 충주로 이동되었으며, 1917년에는 수원수비대와 헌병분대가 해산되었다.¹⁷⁾ 1917년 말 현재 진위경찰서(병남면 평택리 소재) 산하에는 4개의 순사주재소가 있었다.

각 지방의 헌병분대나 경찰서는 관내 주민의 동향과 사회의 추세를 알기 위해 각 장시를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즉 장날을 이용하여 헌병보조원, 조선인 순사, 순사보를 변장시켜 주막에 잠입시켜 인민의 담화 중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징세, 농상공업 관련 사항, 기타 여러 유언비어 등을 엿담하여 자료로 남겼다. 조선인들과 밀착되어 있는 장시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민중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직접적 통로로 활용했다.¹⁸⁾ 3.1운동 당시 일제는 주민들이 독립만세운동 참여를 봉쇄하고자 장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장시는 조선인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장날을 통한 독립만세운동은 한동안 어찌하지 못했다.

1918년 현재 평택역을 중심으로 관공서 및 기타시설로 진위군청을 비롯하여 진위경찰서, 우편소, 학교조합, 조선상업은행지점, 소학교, 지방금융조합, 조선흥업주식회사 파출소, 진위흥농주식회사, 三井물산회사대리점 등 각종 총독부 통치기구와 식민지 상업기구들이 위치해 있었다.¹⁹⁾ 진위군청은 병남면 군문리에 위치했으며, 북면, 서탄면, 송탄면, 고덕면, 병남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오성면, 부용면, 서면 등 11개 면을 관할하였다. 진위군 각 면리원의 현황을 보면 면장 11명에 면서기 49명이었고, 128개 동리에 128명의 구장이 있었다.

조선의 면은 이미 통감부시기에 말단 징세의 단위이자 의병탄압의 보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한일합병 이후 지방행정의 최말단기구로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조선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면의 운영자로 임명하고 면구역 개편, 면유재산 확보 등을 통해 행정 말단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하였다.²⁰⁾ 1917년 조선면제의 시행과 더불어 이는 법제화되었다. 면장은 도장관이 임명하였고, 따라서 일정하게 지역에서 명망성을 얻으면서 동시에 일제에 협력적 대상으로 대우받았다. 당시 면장은 헌병경찰의 물리적 비호 아래 법령의 주지, 징수금의 납입고지, 징수독려, 민적의 이동 보고, 각종 청원 서류의 전달, 면내 정황 보고, 통계 자료 조사, 이장 또는 구장의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²¹⁾ 이러한 면의 기능과 면장의 역할은 주민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도구로 인식되었고, 곧 3.1운동 때 독립만세운동 시위대의

17) 한동민, 「일제강점기 화성행궁의 파괴와 식민통치 기구의 설치」, 『수원학연구』 제8호, 2011, 41~42쪽

18) 허영란, 앞의 책, 82쪽.

19) 경기도, 『경기도안내』, 1915, 37쪽;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성관리국, 『조선철도여행안내』, 1918, 40~41쪽

20)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앞의 책, 93쪽

21)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327쪽

직접적 저항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3. 3.1운동 이전 평택지역의 항일구국운동과 근대교육

1) 항일구국운동

① 동학농민운동과 천도교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 평택지역의 동학교인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원을 비롯한 인근 경기남부지역의 양상으로부터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성현주의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에서 상세하게 연구해 놓은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893년 교조신원운동에 이은 척왜양창의운동에 각지의 동학교도가 보은 장내리로 모였는데, 깃발마다 칭호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수원집과 진위집에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²⁾ 수원집에 속한 사람이 1천여 명에 이르며, 평택과 인근의 안성집 300명, 죽산집 4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창의운동에 참여했던 평택지역의 동학세력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유수는 평택 소사에 동학군 1만여 명이 있다고 보고하는 한편 정산군 출신의 김영배는 1894년 2월 20일 서울을 출발하여 소사평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 동학군과 함께 10여 일을 머물다 금구 원평으로 내려갔다.²³⁾

또한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서도 평택지역의 동학지도자로 金鏞喜와 金滢植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들은 9월 23일(양) 천안에서 일본인 6명을 살해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²⁴⁾ 뿐만 아니라 張敎鎭, 鄭東柱, 金芝鉉, 盧秉奎, 李承擘, 李圭成, 李麟秀, 高文在, 安領植, 張仁秀, 朴仁勳 등은 동학혁명 이전 또는 동학혁명 시기에 동학에 입도한 인물들로, 이들 역시 동학혁명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농민운동 이후 평택지역의 동학조직은 김한식과 이민도 등의 노력으로 회복되어 갔다. 1906년 천도교중앙총부와 지방교구가 설치될 때 평택지역은 수원교구에 소속되었다. 고덕면과 현덕면에는 수원교구 소속의 면전교실이, 그 외 지역은 진위교구가 각각 설립되었다. 이후 1910년대 고덕면전교실은 朴元乘, 元世鳳, 陳鍾萬, 金永學, 金演健, 金有卿, 林承八 등이, 현덕면전교실은 李敏道, 孫壽漢, 吳起泳, 李儒像, 朴利嬋, 張容俊, 崔貞來, 林景漢, 崔利來, 金化景, 李炳憲, 崔宗煥, 李麟秀 등이 전교사와 종리사로 활동하였다.²⁵⁾ 평택지역에는 천도교 교리보급과 근대적 교육을 위해 진위교구에 제539강습소가 설치되었다.²⁶⁾

천도교는 일제의 강점이 시작된 1910년부터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손병희는 지방의 중진 교역자를 중앙으로 불러 49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정신적 무장과 민족의식을 함양시켰다. 평택지역에서는 李敏道가 참여하였다.²⁷⁾ 당시 특별기도에 참여한 인물들은 3·1운동 당시 각 지역에서 3·1운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주도하였는데, 이민도도 앞장서서 3·1운동을 교인들을

22) 「취어」,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 22쪽.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에서 재인용. 평택지역의 동학 및 천도교에 대해서는 성주현 선생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23) 「양호초토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회위원회, 2007, 108쪽. 성주현, 앞의 글에서 재인용

24) 『주한일본공사관기록』1, 122쪽.

25) 「수원군종리원연혁」, 31-32쪽.

26) 『천도교회월보』29호, 49쪽

27) 「수원군종리원연혁」29쪽; 조기주, 『동학의 원류』, 보성사, 1979, 369-373쪽.

지도하였다.²⁸⁾

② 항일의병운동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경기남부 지역의 항일의병은 점차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일제가 수비대와 헌병, 경찰을 증원하여 의병탄압을 강화하였지만 지리에 밝은 의병들은 능숙하게 숨고 나타났다 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의병들은 일본군의 강력한 탄압에 맞서 의병부대를 소부대로 나눠 기동성있는 '유격적'으로 대응했다. 이 시기 평택지역 일부에서도 의병의 활약상이 확인된다.

1907년 9월 진위군에서 의병 16명이 총기 8정을 확보하였고, 10월 5일에는 의병 20여 명이 일북면 동천리에서 화포 등 총기 조달을 명령하였으며, 같은 달 10일에는 동경리에서 의병 2명이 군자금을 마련한 뒤 양성군쪽으로 이동하였다.²⁹⁾ 10월 26일 새벽에는 의병 약 160명이 평택군청 아문(衙門)과 분파소(分派所)를 파괴하고 아전을 구타한 뒤 수원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성환수비대에서 병정 4명과 순사가 파견되었다.³⁰⁾

점차 평택지역의 항일의병들은 안중시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일제의 수비대(守備隊) 및 '토벌대(討伐隊)'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907년 11월 17일 안중시장 부근에서 의병 500명이 성환수비대에서 출동한 일본 병사들과 교전했다.³¹⁾ 1908년 2월경 안중장 부근 곳곳에서 의병 3,40명이 나타나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성환수비대의 일본 병사들이 출동했다.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 출발했다고 한다. 같은 달 23일에는 안중시장 동북지역 운촌(雲村)에서 의병 약 10명이 '토벌대'를 맞아 교전을 했다.³²⁾ 1908년 중반 이후 평택지역에서 항일의병 투쟁은 보이지 않는다.

③ 국채보상운동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가 식민지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일본의 차관도입정책에 따라 대한제국의 대일부채는 급격히 늘어났다. 1907년 현재 외채는 1,300만원에 달했다. 일제의 경제적 침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일부채는 곧 국권의 상실 여부와 직결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국채를 보상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났다.³³⁾

1907년 2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당시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보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평택지역에서도 1907년 3월부터 모금에 참여했는데, 그 시작은 진위군 율포의약사(栗浦義約社)에서 33환 10전을 『황성신문』에 기탁하면서였다.³⁴⁾ 특히 진위보통학교 교원 윤대선(尹大善)은 <국채보상회연의문>을 발표하여 평택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였다.³⁵⁾ 이후 각 마을을 단위로 국채보상을 위한 모금이 경쟁적으로 진행되었고 나아가 개인이 직접 의연금을 내는 모습으로 확산되었다. 학생들과 여성의 참여도 적지 않았으며, 상인들과 교회에서 함께 했다. 이처럼 평택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유럽과 관료, 종교계

28) 성주현, 앞의 글

29)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1995, 85쪽

30) 『황성신문』 10월 29일

31) 『황성신문』 1907년 11월 23일

32) 『황성신문』 1908년 2월 21일; 『황성신문』 1908년 3월 31일

33)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41쪽

34) 『황성신문』 1907년 3월 18일 광고. 평택지역의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17일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제160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서태정 선생의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다.

35) 「진위연의문」, 『황성신문』 3월 28일

와 상인, 여성,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이러한 흐름은 1908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평택지역의 국채보상운동 모금자의 계층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³⁶⁾

<평택지역 국채보상운동 모금자 계층별 현황>

구분	전체	여성	아동/학동	유림/관료/ 계몽운동가	상인	종교
기사별 등장수(건)	112(89)	8	5	8	3	1
참가자수(명)	1,884	9	8	34	29	28

2) 평택지역의 초기 근대교육 현황

대한제국기인 평택지역에 근대적인 사립교육기관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1895년 고종의 <교육에 관한 조칙> 발표 이후 각급 학교 관제와 규칙이 제정, 공포되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평택지역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진위소학교(振威小學校, 현 진위초등학교의 전신)이다.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사립교육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³⁷⁾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사립교육기관 현황>

학교명	설립 연도	위치	설립자	교과목	학생수	출전
진위소학교	1898	진위군	이범철			『제국신문』 1898.11.21
남산리학교	1904	팽성읍 남산리	강란수			『평택군지』, 1984
진흥의숙	1906	고두면 울포리	이범창	한학, 산학/ 홍학회 조직	40~50	『대한매일신보』 1907.2.23
국문학교	1906	고두면	이범철	국문	농민자제	『대한매일신보』 1907.2.23
진문소학교	1907	이북면 가곡리	김영진	심상과, 고 등과	50~60	『대한매일신보』 1907.12.29 『황성신문』 1908.2.21, 29
수성학교	1907	수원군 북면 백봉 ³⁸⁾	서상천	한문, 일본 어	53	『대한매일신보』 1907.2.19 『황성신문』 1907.1.28, 2.4
오산학사	1907	진위군 병파 면 오산				『황성신문』 1908.10.15
성공신명 강습소	1907	평택군 부용 면 객사리	성공회 지부		40	『동아일보』 1927.4.23
사범양성 학교	1908	진위군	김영진			『황성신문』 1908.3.7
동명의숙	1909	병파면 합정 리	김춘희	한학, 산학, 일본어/노동	주야 80 여 명	『대한매일신보』 1909.11.18

36) 평택지역 국채보상운동 모금 현황과 계층별 현황표는 서태정,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에서 재인용하였다.

37) 서태정, 「한말-일제하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 수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26 쪽; 「대한제국기 평택지역 계몽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2011.12.1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제160회 월례발표회 발표문에서 재인용.

				야학교 설치		
사숙	1909	진위군 일서 면 마두리	이병철		수십명	『황성신문』 1909.3.13
진동학교		서정리				『황성신문』 1910.4.21
노동야학 회	1909	진위군	유준홍		50여 명	『대한매일신보』 1909.2.14

진위소학교는 1898년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 그 다음 해 2월에 곧 공립화되었는데 이는 교육이 매우 부진한 이곳에 비춰 매우 이른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904년 강란수(姜蘭秀)의 사랑방에서 출발한 남산리학교이다. 남산리학교는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조선교육령>에 따라 1913년에 평택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³⁹⁾

1907년 이범철(李範喆)이 당시 진위군수 백남규(白南奎)와 상의하여 조직한 한남흥학회(漢南興學會)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 목적은 교육과 식산방침 및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함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은 <흥학회 취지서>란 이름으로 발표되었다.⁴⁰⁾

당시 사립교육기관의 대부분은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은 지방행정 관료나 지역유지들의 교육운동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동명읍의 경우 1917년 4월 1일부로 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되어 새로운 교사를 짓고 이전하였다. 이때 학교 부채 400여 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유지들이 '교채상각(校債償却)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했다.⁴¹⁾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1910년대까지 이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평택 지역에 처음 설립된 근대적인 공립학교는 진위공립소학교(현 진위초등학교의 전신)이다. 1895년에 제정된 소학교령, 즉 고종의 「교육에 관한 조칙」 발표 이후 1899년 2월 진위군 현내면에서 개교하였다. 한일합병 이후 진위공립보통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습과(2년제)와 보통과(4년제)로 나뉘었다. 192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졸업생은 20명 내외였다.⁴²⁾

1913년에는 병남면에 평택공립보통학교(현 평택성동초등학교의 전신)가 설립되었다. 일제 강점 후 <조선교육령>에 따라 1913년 3월 25일자로 조선총독에 의해 평택공립보통학교 설치가 인가되었고, (충청남도) 평택군 읍내면 객사리에 위치하였다.⁴³⁾ 이는 1904년 지금의 평성읍 남산리 강란수(姜蘭秀)의 사랑방에서 비롯되었다.⁴⁴⁾ 개교 직후 진위공립보통학교보다 교원 수가 적었으나 1917년 이후 많아진 것으로 보아 학생수도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05년 경부철도가 건설되고 평택역이 설치되면서 진위지역에서 평택지역으로 중심이 이동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10년대 평택지역은 근대적 교육기관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은 근대적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경제적인 문제로 평택공립보통학교의 경우 개교 초기에 학교 선생이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직접 돌아다녀야 했으며, 중도 퇴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38) 수원군 북면 백봉리는 현재 평택시 청북면 백봉리이다.

39)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3월 25일

40) 「振威古頭面栗浦設立 興學會趣旨書」, 1907(서태정, 앞의 글에서 재인용)

41) 「교채상각연주회」, 『매일신보』, 1917년 4월 1일; 「평택에 연주회」, 『매일신보』, 1917년 4월 14일

42) 서태정, 「한말일제하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 수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45~47쪽

43)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3월 25일

44) 평택군지편찬위원회, 『평택군지』, 1984, 846쪽

한편, 일제는 내선일체에 입각한 동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일본어 보급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들은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여 제도권 교육기관은 물론 야학이나 사설강습소 등을 설치하고 일본어를 교육하였다. 설립 및 운영 주체는 공립보통학교, 군청, 경찰서, 헌병분견소 등 교육기관 또는 관청, 관변측 인사와 유지, 일본인들이었다.⁴⁵⁾

평택지역의 경우 1911년 평택군청은 '국어야학교'를 설립하고 직원 30여 명에게 일본어를 교육시켰다.⁴⁶⁾ 1917년에는 포승면에 국어강습소, 청북면에 국어강습회가 각각 설립되었다. 1910년대 야학 또는 '국어강습소'는 식민체제의 공고화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으로 생활 속으로까지 침투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1911년 <사립학교규칙>, 1915년 <개정 사립학교규칙> 등에 의해 민족의식을 고취해 오던 사립학교들의 수는 감소되었다. 반면에 전통적인 교육기관인 서당을 통한 민족의식의 교육이 확산되었다. 1917년 평택지역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사립학교 및 서당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⁷⁾

<부군별 사립학교 및 서당현황(1917)>

부/군	사립학교		서당	
	학교수	학생수	서당수	학생수
진위군	1	316	115	8,503
안성군	1	380	151	11,578
수원군	3	2,120	248	16,580

위의 표에 의하면 1917년 말 현재 평택지역의 경우 근대적 교육기관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115개의 서당에 8,5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운동 당시 안성의 '원곡면사무소 습격사건'에 연루된 평택지역 주민들 가운데 대부분이 무학문맹이었으며, 일부가 서당에서 한문교육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오성면의 김용성(金容成, 26세)은 서당 한문 교사로 1919년 4월 3일 학현리 봉오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맺음말

이상으로 1919년 평택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사회경제적, 역사적 배경에 대해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평택지역 3.1독립만세운동은 1905년 경부선 개통되고 평택역과 서정리역이 설치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온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평택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서고 상업권이 형성되었으며, 인구구성에 있어서도 상업인구의 급증과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족적 모순도 격화되고 있었다.

또한 평택지역에는 1879년부터 천도교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1893년 교조신원운

45) 김형목, 『교육운동』(한국독립운동의역사 35),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03쪽

46) 서태정, 「한말일제하 평택지역 근대학교의 설립과 성격」, 수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32~35쪽; 김형목, 앞의 책, 90쪽. 군청사 내에는 면장사무견습소를 설치하고 군내 각 면장들에게 『매일신보』 구독을 적극 장려하였다.

47) 조선총독부, 『경기도통계연보』, 1918, 102~105쪽

동 및 척왜양창의운동,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면서 반일독립의식이 일찍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에 강제합병되기 전까지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의병운동이 전개되었고, 특히 국채보상운동은 평택 전지역에서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유림과 관료, 종교계, 상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반일독립의식이 널리 확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택지역의 근대적 교육은 매우 열악했다. 대한제국기 확산되던 사립교육기관은 1910년 강제합병 이후 일제의 공립학교로 축소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평택지역의 아동들은 전통적인 교육기관인 서당을 통해 민족의식 교육을 접했다. 평택지역의 근대적 교육의 확산은 1920년대 이후에 이뤄진다.

여전히 평택지역 3.1독립만세운동의 사회경제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너무도 부족하다. 이번 연구발표를 계기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평택지역 3·1운동의 재검토와
전개 양상

성주현(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평택지역 3·1운동의 재검토와 전개 양상

성주현(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2. 3·1운동 기록에 대한 검토
3. 3·1운동의 전개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3·1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 그리고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전개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3월 1일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만세시위는 일제의 강압적 무단통치에 대해 비록 ‘독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임시정부’가 각 지역에서 조직되었고, 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통합으로 비록 국외이지만 중국 상해에 통합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국내에서는 일제의 잔혹한 만세시위의 탄압에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와 탄압은 서울뿐만 아니라 의주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의 태화관 선언, 그리고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시위를 시작하였고, 또한 이날 평북 의주와 선천, 평남의 평양, 황해도 의 해주, 함남의 원산 등의 지방에서도 동시에 만세시위를 전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초기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농촌 구석구석까지 만세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택지역¹⁾도 예외가 아니어서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평택지역의 3·1운동은 3월 9일 첫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관내 10여 면에서 무려 5천 8백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는 그만큼 평택지역의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택지역의 3·1운동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 성과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에 대한 부정확으로 몇몇 오류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인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사료를 재검토한 후 평택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평택지역 3·1운동의 특성을 분석해보자 한다.

1) 평택은 현재의 지명이다. 1919년 3월 당시에는 진위군이었다. 당시의 기록에는 진위가 대부분이지만 『매일신보』의 기사에는 평택이 종종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평택도 진위군에 속하였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진위를 대신해서 평택이라 한다.

2) 평택시, 『평택3·1독립운동사』, 1977; 평택문화원, 『평택항일독립운동사』, 2007; 김방, 「평택지방의 3·1독립만세운동」,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 평택문화원(사)민세안재흥선생기념사업회, 2008;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 //, 2009.

2. 3.1운동 기록에 대한 검토

평택지역 3.1운동에 대한 기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식민통치를 담당하였던 일제 측의 자료이며, 하나는 3.1운동 시기나 이후에 정리된 국내의 기록³⁾이다. 이들 기록은 기록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 또한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3.1운동 당시의 활동을 보고 차원에서 정리하였기 때문에 정확성은 보다 분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되거나 왜곡된 사례가 적지 않다.⁴⁾ 이에 비해 후자는 傳聞이거나 회고, 증언 등을 통해 기록된 것으로 과장된 경우도 없지 않다. 또한 정확성 측면에서도 전자보다는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두 종류의 기록은 3.1운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록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두 기록을 상호 비교하면서 보완되어야 한다.

평택지역의 3.1운동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일본 측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일본 측 기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선군사령부의 정보와 『매일신보』에 게재된 기사, 구리고 판결문 등이다. 그러나 『매일신보』의 기사는 기본적으로 조선군사령부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 (3월) 11일, 오후 5시경 약 150명의 시위대가 만세운동을 개시하자 수모자 8명을 검속하고 해산하였다.⁵⁾
- (4월 1일) 경기 진위군 평택에서 3,000명 만세세위, 제지에 반항, 경찰 보병과 협력하여 발포로 해산, 시위대 1명 사망, 부상 5명⁶⁾
- 진위군 평택, 1일 밤 평택 부근의 시위대 십 수 시위대 인원 약 3,000명이 평택으로 몰려들었으며,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폭력 행위를 감행하며 완강히 저항함으로써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병과 협력하여 발포 해산했지만 시위대 1명 사망, 負傷者 4명이 있었다.⁷⁾
- (4월) 3일, 진위군내에서도 수개 지역에서 폭력 시위에 경관이 해산, 시위대 약간 死傷者가 있었음⁸⁾
- 4월 1일, 평택, 약 3,000명이 모여 폭력적 시위, 파견 보병 헌병과 협력하여 진압, 사망 1인, 負傷 4인⁹⁾
- 4월 2일, 진위군 북면, 송탄면 만세시위¹⁰⁾
- (4월) 10일 진위군 내에서 만세시위 주동자 검거 중 시위대 30명이 내습함에 경관이 발포로 해산, 시위대 약간 부상이 있음¹¹⁾
- 4월 1일, 평택 약 300명, 제지에 저항함¹²⁾
- 4월 2일, 진위군 내 1곳 다수 만세시위, 발포 해산으로 시위대 死傷 있음¹³⁾
- 4월 3일, 진위군 수개 지역, 폭동 있음, 진압하다 彼我 死傷 약간¹⁴⁾
- 4월 1일, 진위군 평택, 3,000명, 발포, 5명 死傷¹⁵⁾

-
- 3) ‘국내의 기록’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하다. 국내의 기록이라면 3.1운동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남겨진 모든 기록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3.1운동 이후 기록된 것으로써 사료적 가치가 있거나 관련 연구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예를 들어 이병헌의 『3.1운동비사』, 이용락의 『3.1운동실록』 등이다.
- 4) 가장 대표적인 왜곡 사례는 제암리에서 전개되었던 학살사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제정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을 참조할 것.
- 5)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原書房, 1968, 352쪽.(국학자료원, 1992, 복각);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미즈루書房, 1977, 305쪽.
- 6)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487쪽;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191쪽.
- 7)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489쪽;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344쪽.
- 8)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494쪽;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182쪽.
- 9)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530쪽.
- 10)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258쪽.
- 11)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552쪽;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195쪽.
- 12)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553쪽.
- 13)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553쪽;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181쪽.
- 14)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554쪽;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169쪽.

- 4월 10일, 진위군 금암리, 40명, 발포¹⁶⁾
-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위군 평택, 사망 1인, 부상 4인, 합계 5인¹⁷⁾
- (4월) 10일, 경성 진위군 서탄면 내에서 출장 경관에게 폭행하자 발포 해산 후 사상자 있음¹⁸⁾
 - 진위군 금암리 (4월) 10일 새벽 서탄면 금암리에서 보안법사건에 관련하여 경찰관 출장, 수색 중 그곳의 주민 약 40명이 경찰관을 포위하고 돌을 던지는 폭행에 의해 발포 해산하였지만 주민 사상자 약간 있었다.¹⁹⁾
 - (4월) 10일, 진위군 내 약 40명, 시위 주동자 검거 중 경관을 습격함, 발포로 해산하였으며 주민 약간 死傷 있음²⁰⁾
 - 4월 10일, 진위군 서탄면, 범인 검거 중 마을 주민 40명 내습 폭행, 부상 약간 명²¹⁾
 - 경기도 진위, 4월 1일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사상 10여 명,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상 20, 합계 사상 70²²⁾
 - 경기도 진위군 서탄면 금암리, 4월 6일부터 11일까지, 부상자 약간 명,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망 33, 부상 85, 합계 사망 34, 부상 87, 사상 70²³⁾
 - 4월 1일, 진위군 평택, 3,000명, 사망 1, 부상 5²⁴⁾
 - 4월 10일, 경기도 진위군 서탄면 금암리, 40명, 사망 12²⁵⁾
 - 작 1일(4월 1일) 경기도 진위군 평택 부근 (시위가 있었음)²⁶⁾
 - (4월) 10일, 경기도 진위군 서탄면에서 약 40명의 군중이 폭행하자 헌병 발포로 해산, 시위대 부상 약간 있음²⁷⁾
 - 진위군 송탄면 (4월) 2일 오후 10시 송탄면 각 마을에서 봉화를 올리고 만세운동을 개시하고 폭행을 하자 발검 발포로 해산시켰지만 시위대에서 사상자 약간 있었음²⁸⁾
 - 진위군 안중리 (4월) 2일 오성면 안중리 부근의 주민이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곧 바로 해산하였다.²⁹⁾
- (3월) 10일 아침에 이상히 쓴 글을 두 서너 곳에 붙여 있는 고로 계엄하던 중 오후 5시쯤 되어 평택정거장 앞 십자가로에서 수십 명이 모이며 역시 독립만세를 부르는 고로 진위경찰서에서는 순사 수명과 및 당분간 주재하여 있는 보병 수명이 급행하여 주모자 7명을 인치하고 모이며 있는 군중은 해산하였으나 아직 경계 중이라더라.³⁰⁾
 - 지나간 (3월) 11일 평택정거장 앞에서 독립만세를 불러 시위운동을 개시한 이래로 주모자로 검거된 자 13명은 19일까지 심리를 마친 후 안중철 외 한 명은 방환되고 안중수 외 5명은 학교 교장의 담보로 방환되었으며, 그 외 5명은 보안법 위반 기타로 20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하였는데, 그 성명은 아래와 같다. 진위군 내 비전리 이도상, 同里 목준상, 同同 심현섭 동면 평택리 한영수, 同里 민응환³¹⁾
 - 진위군 북면 봉납리는 천도교의 근거지라고 할 만한 곳인데, 과연 (3월) 31일 500명의 일대가 면사무소로 몰려가서 면장을 끌어가서 자못 위험한 때문에 수비병 경관의 일대가 자동차를 몰아 현장에 급행하였더라.³²⁾

15)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561쪽.
 16)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579쪽.
 17)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580쪽.
 18)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591-592쪽;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197쪽. 강덕상의 책에는 서탄면이 아니라 '靑丹面'으로 기록되어 있다.
 19)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593쪽;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368쪽.
 20)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607쪽;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204쪽.
 21)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618쪽.
 22)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676쪽.
 23)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679쪽.
 24)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727쪽.
 25)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745쪽.
 26)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257쪽.
 27)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264쪽.
 28)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353쪽.
 29) 강덕상, 『현대사자료 조선-3·1운동편(1)』, 353쪽.
 30) 『매일신보』 1919년 3월 13일자.
 31) 『매일신보』 1919년 3월 25일자.
 32)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자.

진위군 평택 조선인 상점은 4월 1일부터 철시를 하였으므로 당국에서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밤 9시 50분쯤 되어 평택정거장으로부터 서편으로 약 10정되는 곳에서 소요를 시작하여 이에 따라서 사방으로부터 일제히 산에 불을 피우고 자못 불온한 태도가 증만하였으므로 당국에서는 발포하였으나 원래 여러 곳이었으므로 12시 20분 가량이니 되어 경우 진정되었는데, 사망자 4명 중상자 1명, 경상자 십 수 명을 내었다.

4월 1일 밤 진위군 서면, 부용면에서 떼를 지어 평택으로 향하여 오다가 안성천교 부근에서 소요를 시작하였으므로 동군 병남편, 송탄면, 고덕면까지 차차 만연되었다.

이번 소요 사건이 일어남을 따라 경계키 위하여 당국에서는 밤에 출입을 금지하였다.

4월 2일 오후부터는 만일을 경계키 위하여 일본인 상점도 일제히 철시하였다.³³⁾

▪ 진위군 고덕면에서는 지난번 소요 이래로 일항 평정치 못하던 바, 경관 내는 병정 8명과 평택 자위단 8명과 함께 선동자를 검거키 위하여 출장 한 후 근처 촌락을 순찰하고 돌아가고자 할 때 9일 오후 8시쯤 되어 또 군중이 반항의 기세를 보이고 소요하였으므로 마침내 발포하였는데, 반중의 일이 되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6,7명이 죽고 60여 명이 부상하였다. 그런데 동군 금암리에서는 10일 약 40여 명의 군중이 주재소를 습습하여 옴으로 총을 놓아 해산케 하였는데군중편에 약간의 사상이 있었다.³⁴⁾

- 이도상, 목준상, 심현섭, 한영수 판결문 : 3월 11일 평택역 앞에서 만세시위 주도
- 박성백, 최구홍, 유동환, 전영록, 유만수, 김봉희 판결문 : 3월 31일 북면 봉남리에서 만세시위 주도
- 정경순, 최선유 판결문 : 4월 1일 북면 은산리에서 만세시위 주도
- 최만화, 안육만, 안희문, 황순태, 정수만, 홍기성 판결문 : 4월 1일 청북면 백봉리에서 만세시위 주도
- 김용성, 공재록, 이충필 판결문 : 4월 3일 오성면 학현리 봉오산에서 봉화만세시위 주도
- 윤기선, 윤교영, 한성주, 윤대선 판결문 : 4월 2일 서탄면 면사무소에서 만세시위 주도

위의 기록은 일본 측 기록이다. 전자는 군 또는 경찰에서 수집한 정보이고, 후자는 『매일신보』에 게재된 기사, 그리고 판결문이다.

다음은 국내의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내의 기록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당시의 기록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증언 등을 통해 남긴 기록이다.

▪ 3월 9일, 현덕면에서 각 면민이 산에 올라 불을 놓고 만세를 외치니 인근 면에서도 호응하였다.

▪ 3월 10일, 오성면에서 군중들이 평야를 비롯하여 산간지대로까지 누비며 일제히 만세를 외쳤고, 청북면은 토진리 뒷산과 마루산, 그리고 신평장터에서 다수의 군중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였다. 한영수는 평택리에서 지휘하다가 잡히어 경성 서대문 감옥에서 3년간 옥살이 한 뒤 별세하였다.

▪ 3월 11일, 평택읍에서는 아침에 만세시위하자는 격문이 정거장 앞에 나붙어 경찰이 경계하였으나, 오후 5시경 평택 역전 사거리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만세시위하며 군문리 다리 쪽으로 행진하던 중 소방대의 경중이 울려 경찰이 출동하였다. 그리하여 군중은 강제 해산당하고 그 가운데 주동자 7명이 구급되었다. 평택역 앞에서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주동자 14인이 잡혔는데, 안중철 외 1인은 14일간 구급되었다가 풀려나고 학생 안충수 외 5인은 학교 교장의 신원보증으로 풀려났으며 다른 5인은 보안법위반이라 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었는데, 그 압송된 사람은 현 평택읍(진위군 병남면) 비전리 이도상, 목준상, 평택리 민용환, 오성면 양교리 한영수 등이었다.

▪ 3월 21일, 북면(현 진위면) 야막리에는 천도교구가 있고 천도교인이 많은 곳이다. 봉남리 주민과 합세한 500여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면사무소를 습격한 뒤 면장을 앞세우고 만세시위할 때 경찰과 수비대는 자동차를 이용해 출동하고선 군중을 해산시키고 주동자 박창훈을 가두었다.

▪ 3월 22일, 현덕면 권관리 천도교인 이민도, 이승엽, 최리래, 최혁래, 장용준, 이인수, 최중환,

33) 『매일신보』 1919년 4월 5일자.

34) 『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자.

이민익, 최정래, 최우섭 등을 평택경찰서에서 호출하여 엄중한 신문을 하였는데, 그중 이민도는 아들이 천도교중앙총부에서 독립운동 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혹독한 취조를 받고 풀려났다.

· 3월 23일, 고덕면 두릉리 임승팔, 고문계, 이승기, 김유경 등을 경찰에서 호출하여 김유경에게 안재홍, 이병헌에게 연락한 사실여부를 추궁하던 중 1월경 고문계가 독립운동자금 108원을 서정리에서 이병헌에게 건네준 일이 드러났는데, 천도교당 건축비란 영수증이 있어 무사하였다.

· 4월 1일, 밤 9경 평택정류장으로부터 시위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부응하여 각처에서 일제히 산위에 불을 놓고 만세시위하므로 경찰은 형세가 급하다고 판단하여 발포하기 시작하였다. 동 12시 20분경에 해산당했는데 중상자 1명과 경상자 10여 명이 생겼다. 이날 밤 팽성(서면, 부용면)에서도 군중이 무리지어 평택 구읍 뒷산에 불을 놓고 평택역 쪽으로 달려오며 만세시위를 벌이자 이에 호응하여 송탄면 지산리 이약우는 보통학교 학생으로서 독립선언서를 돌리며 연락하여 고덕면에서도 만세를 외치며 평택읍으로 진출하려고 하니, 일본인은 겁에 질려 모두 상점문을 닫아버렸다.

· 4월 10일, 서탄면 금암리에서는 100여 명의 군중이 주재소를 습격하면서 만세시위를 벌이니 경찰은 발포하면서 해산을 강요하였다. 사리, 수월암리 주민도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자진 해산하였다.³⁵⁾

· (오성면) 4월 1일, 안화리 거주 안육만, 김원근 등이 주동이 되어 청북면 백봉리로 가서 최만화, 안선문, 황순태, 정수만, 홍기성 등의 찬동을 얻어 동민을 동원하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결행하였다. 또 오성면 학현리에서도 4월 3일 김용성, 공재록, 이사필 등의 주동으로 동민과 함께 봉오산에 올라가 햇불을 켜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결행하였다.

· (북면) 은산리에 거주하는 정재운, 정경순, 정문학 등이 주동이 되어 동민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만세시위를 결행하면서 주재소까지 행진하였다.

· (평택읍) 4월 10일 평택장날인지라 병남면 비전리에 사는 이도상과 T합정리에 사는 목준상, 오성면 양교리의 한영수, 비전리의 심현섭 등이 주동이 되어 다수의 군중과 함께 이도상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결행하였다.

· (서탄면) 4월 2일 서탄면장 윤기선이 주동하여 면서기 한성수를 시켜 각 구장에게 동민들을 4월 3일 정오에 면사무소 앞으로 모이게 하라는 공문 지시를 보내고, 그날 면민 400여 명과 함께 윤기선 면장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윤교영, 윤대선 등이 격문을 돌리고 시위를 벌였다.³⁶⁾

· 평택군 내 각면의 3.1운동은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계속 봉기한 바, 고덕면 안재홍의 연락도 받았고 ... 비전리 안중락이 국장 때 상경하여 ... 독립선언서라 쓰여 있어 ... 고향에 돌아와 큰형인 안중철에게 그것을 보였다. ... 큰아버지의 설명을 들은 안중수는 학생인지라 피가 끓는 것 같았다. 동생인 이도상, 목준상, 심현섭, 한영수, 민용환, 안중악, 안봉수 등과 회합하여 ... 3월 11일 거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날 새벽 평택역전이 3개의 전선주에 독립선언서를 붙였는데 ... 오후 6시경 할생 단체 수십여 명이 역전광장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높이 외쳐댔다. ... 결국 체포되어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 그뒤 15일 동안은 군내가 잠잠하다가 3월 21일 다시 북면 봉남리 천도교인 중심으로 의거가 맹렬하였고, 4월 1일 평택역전 가까이 서방 오선에서 필기하였고, 4월 9일 고덕면, 북면, 서탄면 금곡리 등 각 지방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만세를 외치다가 서로 연락하여 평택역전 광장에 모여 대대적인 시위운동을 펼치기로 다짐하였다. ... 마침 밤 9시경 각면에서 모인 군중이 평택, 수원 간 큰 길에 나와 만세소리가 진동 ... 총을 마구 쏘아 대니 ... 이때 귀가하지 않은 자는 죽은 것으로 알고 대강 세어보니 고덕면 사람이 9인이요, 평택읍 사람이 5인이요, 서탄면 사람이 4인이요, 부상자가 67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³⁷⁾

이상으로 일본측 기록과 국내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5)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79 쪽.

36) 『대한독립항일투쟁사』, 편찬위원회, -----

37) 이용락, 『3.1운동실록』,

<표1> 평택지역 3.1운동에 대한 기록

날짜	일본 측 기록	국내 기록	비고
3.9		현덕면 일대 산상 만세시위	
3.10	오후 5시경 평택정거장 앞 만세시위, 주도자 7명 검거	오성면 일대, 청북면 토진리 뒷산과 마루산, 신포장터 등지에서 만세시위	
3.11	오후 5시경 150여 명 만세시위, 주도자 8명 검거	오후 5시경 평택역전에서 만세시위 주도자 7명 검거	이도상, 목준상, 심현섭, 민응환, 한영수/안중철, 안충수
3.21		북면 야막리, 봉남리 천도교인 만세시위, 면사무소 습격	
3.22		천도교인 이민도, 이승엽 등 사전 검속	만세시위는 없음
3.23		고덕면 두릉리 이승팔 등 사전 검속	만세시위는 없음
3.31	북면 봉남리 천도교인 중심으로 만세시위		박성백, 최구홍, 유동환, 전영록, 유만수, 김봉희
4.1	평택(역)에서 3,000여 명(또는 300명) 만세시위, 사망 1명, 부상 5명(또는 4명)//서면 부용면 병남면 송탄면 고덕면에서 봉화만세시위//청북면 백봉리에서 만세시위/북면 은산리에서 만세시위	평택정거장에서 만세시위//이에 대응하여 서면과 부용면, 고덕면 등 각지에서 봉화만세시위, 이충수 보통학교 학생 독립선언서 배포//청북면 백봉리 만세시위	안육만, 김원근, 최만화, 호아순태, 안선문, 정수만, 홍기성
4.2	북면, 송탄면에서 오후 10시 봉화만세시위, 안중리에서 만세시위 후 자진 해산//서탄면에서 만세시위		윤기선, 윤교영, 한성수, 윤대선
4.3	진위군 수개 처에서 만세시위, 사상자 있음//오성면 학현리 봉오산에서 만세시위	오성면 학현리에서 봉오산에서 만세시위//서탄면장 윤기선 주도로 만세시위	김용성, 공재록, 이충필
4.9	고덕면 만세운동 선동자 검거 중 오후 8시경 60여 명 만세시위 발포로 다수 사상	고덕면, 북면, 서탄면 금곡리에서 만세시위를 하고 평택역으로 이동	
4.10	서탄면 금암리에서 40여 명이 주재소 습격하고 만세시위	서탄면 금암리에서 100여 명 주재소 습격하고 만세시위, 사리, 수월암리에서도 만세시위//평택 장날 이도상, 목준상, 한영수, 심현섭 등의 주도로 만세시위	

<표 1>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두 기록에서 지역별 만세운동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우선 3월 11일의 평택역 앞 만세시위, 4월 1일의 평택역 앞·청북면 백봉리 등 만세시위, 4월 3일 오성면 만세시위, 4월 9일 고덕면 만세시위, 4월 10일 서탄면 금암리 만세시위 등이다. 이 두 기록이 일치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3월 11일과 4월 1일 만세시위는 평택에서 가장 격렬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음을 볼 때 일제의 기록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두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3월 9일의 현덕면 만세시위와 3월 21일 북면 천도교인의 만세시위, 3월 31일의 북면 천도교인의 만세시위이다. 이 일치 하지 않은 기록에서 3월 9일은 이병헌의 기록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병헌의 기록의 신빙성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병헌은 현덕면 권관리에서 태어났으며 수원에서 활동하였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서울로 진출,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교정보는 한편 운반하였으며 서울과 수원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민도는 일경에 예비검속을 당하여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3월 21일 북면 봉남리 천도교인 중심의 만세시위는 3월 31일에 전개되었던 것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날의 만세운동을 보면 일제 측 기록인 3월 31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박성백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이용락의 기록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다. 이로 본다면 3월 9일의 현덕면 일대의 산상만세시위는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³⁸⁾

셋째는 동일한 날의 만세시위가 때로는 다른 날로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3월 10일과 3월 11일의 만세시위는 사실상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기록을 볼 때 평택지역의 3.1운동은 3월 11일이 아닌가 판단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없지 않다. 이후 평택지역의 만세시위는 4월 10일까지 이어졌는데, 약 한 달 중 '7일' 즉 3월 11일, 31일, 4월 1일, 2일, 3일, 9일, 10일에 만세시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3.1운동의 전개 양상

본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기록을 토대로 평택지역의 3.1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평택지역의 3.1운동은 서울보다 10여 일 늦은 3월 9일 첫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4월 1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5,800여 명이 참가하였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³⁹⁾ 본고에서는 평택지역 만세운동의 전개과정을 편의상 시간의 추이에 따라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던 3.1운동은 고종의 국장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망국의 설움과 고종의 죽음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만세운동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⁴⁰⁾ 지방에서는 고종의 국장에 맞추어 철시를 하거나 망곡식을 가졌다. 평택에서는 紳商 柳昌根 李成烈 南相殷 辛廷薰 李日薰 金文煥 崔華燮 閔載衡 등 20여 명이 3일간 휴업하였으며, 趙載熙 金鳳南 鄭謙秀 柳彰河 李完根 韓奎東 등 유생들은 碑前山에서 망곡식을 가졌다. 그리고 시민 일반은 半旗를 게양하고 奉悼의 뜻을 표하였다.⁴¹⁾

이러한 분위기에서 평택지역에서 처음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된 곳은 현덕면이었다. 현덕면에서는 3월 9일 밤 각 마을마다 일제히 산에 올라가 불을 놓고 만세를 불렀다.⁴²⁾ 현덕면에

38) 이러한 기록은 수원만세운동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수원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은 3월 1일이었다고 이병헌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병헌의 유일한 기록이다.

39) 김방, 「평택지방의 3.1독립만세운동」, 평택항일독립운동사 세미나 자료집, 2008, 5쪽.

40) 이정은,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 129-134쪽.

41) 『매일신보』 1919년 3월 9일자.

42) 이병헌,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79쪽.

는 鷄頭峰을 비롯하여 옥녀봉, 고등산 등이 있는데, 이들 산 정상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3월 10일에는 현덕면 계두봉 등의 만세운동에 영향을 받은 오성면에서도 주민들이 평야와 산에 올라 만세시위를 하였다. 현덕면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에서 선언서를 교정하고 이를 운반한 바 있는 이병헌의 고향이며, 또한 천도교인이 많았던 곳으로 천도교전교실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현덕면의 천도교인들은 수원교구에서 활동하였는데, 3월 1일 전개된 수원의 만세시위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으로 만세시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날 청북면에서도 토진리 오봉산과 마루산 정상에서 신포의 주민들이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⁴³⁾

계두봉 등에서 첫 산상만세시위를 전개한 지 3일째인 3월 11일에는 李道相, 睦俊相, 沈憲燮, 韓泳洙, 安鍾喆, 安忠洙 등의 주도로 평택읍내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⁴⁴⁾ 이도상은 서울과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소식을 3월 5일경에 듣고⁴⁵⁾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로 결심한 후 3월 10일 밤 동생 李德相을 찾아가 집안일을 맡겼다.⁴⁶⁾ 다음날 11일 오후 5시쯤 이도상은 평택역 앞에서 장날에 모인 군중을 향해 만세를 선창한 후 군중을 선동하였고,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목준상, 심헌섭, 한영수, 민응환 등이 이에 동조하여 군중들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⁴⁷⁾ 진위경찰서는 순사 수명과 보병 수명을 급파하여 이도상 등 주도자 13명을 검거하고 만세 시위대를 해산하였다.⁴⁸⁾ 이날 함께 검거되었던 안중철, 안중수 등은 풀려났고 만세시위를 주도한 이도상, 목준상, 심헌섭, 한영수 등 4명만 보안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겨졌다.⁴⁹⁾ 이도상 등은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도상 징역 1년, 목준상 심헌섭 한영수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언도받았고⁵⁰⁾ 상고하였지만 5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심 형량 그대로 선고하였다.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도상 등은 이에 불복하고 경성고등법원에 상고하였지만 5월 31일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어⁵²⁾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후 20여 일 정도 진정되었던 평택의 만세운동은 3월 31일⁵³⁾ 북면 야막리와 봉남리에

43) 이병헌, 『3·1운동비사』, 890쪽.

44) 『매일신보』 1919년 3월 13일자;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13보), 고제6763호, 1919년 3월 12일자;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민족주의운동편), 原書房, 1967, 352쪽; 강덕상, 『3·1운동』(1), 미사즈書房, 1967, 305쪽.

45) 이도상이 만세운동에 대한 소식은 3월 7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 만세시위를 처음으로 보도한 것은 3월 7일자였다. 이날 신문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진남포, 안주, 중화, 강서, 성천, 선천, 의주, 황주, 곡산, 수안, 사리원, 원산, 함흥 등 15개 지역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간단하게나마 보도하였다. 평택에서 신문 이외에 이들 지역에서 전개된 만세운동 소식을 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46) 이도상은 동생을 찾아가 “이 기회에 조선독립을 꾀하기 위하여 명일이 평택 장날이므로 그곳에 가서 동지와 함께 조선독립을 제창하여 만세를 외칠 작정이다. 그렇게 하면 곧 체포될 것이므로 다시는 집에 못 올 것이니,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여 달라.”고 하였다.

47) 「이도상 등 4인의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년 4월 11일; 『독립운동사자료집』 5(3·1운동 재판기록),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405-406쪽.

48) 『매일신보』 1919년 3월 13일자; 이병헌, 『3·1운동비사』, 830쪽; 이용락, 『3·1운동실록』, 금정, 1994, 413-415쪽. 이용락의 『3·1운동실록』에서는 安鍾珪, 安忠洙가 주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安鳳洙, 安鍾岳 등도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병헌의 『3·1운동비사』에서는 安鍾喆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49) 『매일신보』 1919년 3월 25일자; 이병헌, 『3·1운동비사』, 880쪽.

50) 『이도상 등 4인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년 4월 11일.

51) 『이도상 등 4인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년 5월 5일.

52) 『이도상 등 4인 판결문』, 경성고등법원, 1919년 5월 31일.

53) 북면의 만세운동은 이용락은 3월 11일, 이병헌은 3월 21일, 일체측 기록은 3월 31일로 각각 기록되었다. 그런데 북면 만세운동은 이들 날짜에 각각 전개된 것이 아니라 3월 31일에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일체측에 의

서 전개되었다. 야막리는 천도교 진위교구가 있는 곳으로 교인들이 많았다.⁵⁴⁾ 이곳의 천도교인들은 朴昌勳의 주도로 북면 면사무소가 있는 봉남리 천도교인들과 합세하여 5백여 명의 시위대를 형성한 후 오후 4시경 면사무소로 달려가 면장을 끌어내고 만세를 불렀다.⁵⁵⁾ 이날 만세시위에서는 朴成伯, 崔九弘, 柳東煥, 全榮祿, 金鳳熙 등이 미리 만든 태극기로 시위대를 선동하였고, 이들의 주도로 북면사무소와 봉남리 경찰서주재소 앞에서 만세를 부른 후 각 마을을 행진하였다.⁵⁶⁾ 이날 만세시위를 주도한 박성백 등 6명은 일경에 검거되었고, 5월 9일 박성백, 최구현, 유동환, 전영록 등 4명은 징역 1년 2개월, 유만수와 김봉희는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⁵⁷⁾ 박성백 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며 6월 21일 박성백, 최구현, 유동환, 전영록 4명은 징역 1년을, 유만수와 김봉희는 태 90일⁵⁸⁾로 감형되었다.⁵⁹⁾ 박성백, 최구현, 유동환, 전영록은 상고하였지만 8월 7일 경성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었다.⁶⁰⁾

이어 4월 1일에는 평택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치열하게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 측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일 밤 평택 부근의 폭민 10團이 그 인원 3천명이 평택으로 몰려오자 해산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감행하고 완강히 저항하자 이를 막기 위해 보병과 협력하여 발포로 해산시켰는데, 폭민 사망 1명, 부상자 4명이 났다.⁶¹⁾

4월 1일의 만세시위는 이날 밤 9시 50분쯤 병남면 평택역 서쪽 약 10정보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를 신호로 각 지역의 산 정상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서면과 부용면에서는 시위대가 평택으로 이동하다가 안성천교 부근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송탄면

하면 3월 21일 경기도지역에서의 만세운동은 연천군 두일리에서만 전개되었다. 적어도 4,5백여 명이 모여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면 일제 측 기록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용락과 이병현의 기록은 후일 증언이나 다른 기록(일제 측 기록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을 보고 정리한 것으로 보아 날짜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자 기사에 의하면, 이병현의 기록과 『매일신보』의 기사가 거의 동일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면의 만세운동은 3월 31일로 확인된다.

54) 이와 관련하여 북면 만세운동에 참여한 바 있는 박규영의 후손 박종구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야막리의 천도교인들은 3·1운동 때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박종구씨는 야막리 주동자 박창훈은 몰랐지만 자신의 조부와 부친이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은 기억하였다. 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박해도 많이 받았다. 일제는 농촌지역 만세운동의 거점이었던 천도교당과 교회를 박해하는 한편 천도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탄압하였다. 당시 박종구씨는 6살 밖에 불과했지만 일본 헌병들이 들이닥쳐 집집마다 뒤지고 마구잡이로 잡아갔던 광경은 기억하였다. 잡혀간 사람들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조부와 부친도 오산경찰서 헌병대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다. 천도교인들은 만세운동을 주도한데다 위험인물이라고 해서 일반사람보다 고문이 심하게 당했다고 한다. (중략) 만세시위 광경을 목격한 것이 없다는 필자의 질문에 박종구씨는 서탄면 주민들이 사리에서 봉남리로 나가는 큰 길을 가득 메우고 만세를 불렀던 광경을 이야기하였다. 어린 눈에도 길 이쪽에서 길 저쪽까지 시위 군중으로 꽉 들어찬 광경이 수백 명은 되어보였다고 하였다. 한참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하북리 방면에서 헌병들이 총을 들고 나타났다. 그래도 사람들은 굽히지 않고 만세를 불렀는데, 나중에는 총소리에 놀라 흩어져 도망가느라 아비규환이었다고 한다.”(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III, 104쪽)

55)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자; 이용락, 『3·1운동실록』, 415쪽; 이병현, 『3·1운동비사』, 880쪽.

56) 「박성백 등 5인의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5(3·1운동 재판기록), 406-407쪽.

57) 「박성백 등 6인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년 5월 9일.

58) 태 90일은 징역 3개월과 동일한 선고이다.

59) 「박성백 등 6인 판결문」, 경성북심법원, 1919년 6월 21일.

60) 「박성백 등 4인 판결문」, 경성고등법원, 1919년 8월 7일.

61) 「극비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5보), 고계9808호, 1919년 4월 2일자;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 489쪽; 강덕상, 『3·1운동』 (1), 344쪽.

과 고덕면에서도 만세시위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평택읍내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만세시위가 산발적으로 전개되자 진위경찰서는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면서 해산을 시켰다. 12시경에서야 만세시위가 진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4명이 희생되었고, 부상자가 10여 명에 달하였다.⁶²⁾ 또한 일제 경찰은 야간출입을 금지시켰고, 일인 상점은 다음날부터 철시하였다.⁶³⁾ 고덕면에서는 울포리 주민 5백여 명이 만세시위를 하였다.⁶⁴⁾

이날 만세시위에 호응하여 청북면에서는 안육만과 김원근이 이날 밤 백봉리 행길에서 “이 마을에는 왜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는가. 빨리 나와서 만세를 부르라”고 선동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최만화, 안희문, 황순태, 정수만, 홍기성 등 주민들과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⁶⁵⁾ 이날 만세시위에서 주동자인 안육만과 최만호, 안희문, 황순태, 정수만, 홍기성 등 6명이 일경에 검거되었고,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안육만은 징역 1년, 최만화 안희문 황순태 정수만 홍기성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⁶⁶⁾ 안육만, 최만화, 안희선, 정수만 등은 항소하였으나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⁶⁷⁾ 안육만과 안희문은 다시 상고하였지만 역시 8월 21일 경성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⁶⁸⁾

또한 이날 북면 은산리에서는 정경순과 최선유의 주도로 주민 30여 명을 모아 뒷산에서 만세를 부른 후 봉남리 경찰주재소로 몰려가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일경에 검거된 정경순과 최선유는 5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언도받았다.⁶⁹⁾

4월 1일 평택역을 비롯하여 서면, 북면, 송탄면, 고덕면, 청북면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전개된 만세시위는 연인원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장 규모가 컸던 만세운동이었다. 일제는 이날 평택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만세시위를 안성의 양성과 원곡만세시위, 수원군 장안면과 우정면 면사무소 습격시위 등과 함께 ‘가장 광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⁷⁰⁾ 이날의 만세시위에 대해 민세 안재홍은 “遠近 數百里 높고 낮은 峰과 峰, 넓고도 아득한 平原과 河川地帶까지 점점이 피어오르는 화롯불과 천지도 들썩거릴 듯한 독립만세의 웅성곳은 아우성”⁷¹⁾이라고 회고하였다.

다음날 4월 2일에는 서탄면과 송탄면, 안중면, 북면 등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서탄면에서는 尹箕善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당시 면장이었던 윤기선은 4월 3일 새벽 면서기 韓聖洙에게 관내 각 구장으로 하여금 오전 10시에 마을 주민을 인솔하여 면사무소로 집결하도록 명령하였다. 12시경 구장과 주민 4백여 명이 면사무소에 모이자 윤기선은 “세계의 대세로 보면 조선은 독립할 시기에 이르렀다. (중략) 내가 적에게 잡혀가는 일이 있으면 면민 전체를 버을 주는 일이니, 계속 투쟁하라”고 독려하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어 尹敎永은 미리 준비하였던 격문을 돌렸으며, 尹大善은 윤기선에 이어 “왜노를 우리나라에서 추방하자”고 주민들을 선동 만세운동을 독려했다. 서탄면 만세운동을 주도한 윤기선과 윤교영, 한성수, 윤대선은 일제에 검거되었지만 6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무죄로 방면되었

62) 이병헌, 『3·1운동비사』, 880-881쪽; 이용락, 『3·1운동실록』, 415-416쪽. 이용락의 『3·1운동실록』에는 고덕면에서 9명, 평택읍에서 5명, 서탄면에서 4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6,70명이었다.

63) 『매일신보』 1919년 4월 5일자.

64)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기2), 국회도서관, 1977, 372쪽.

65) 『최만화 등 6인의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5(3·1운동 재판기록), 408-409쪽.

66) 『최만화 등 6인의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년 6월 21일.

67) 『최만화 등 4인의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년 7월 5일.

68) 『안육만 등 2인의 판결문』, 경성고등법원, 1919년 8월 21일.

69) 『정경순 등 6인의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년 5월 16일.

70) 『조선3·1독립소요사건』, 『독립운동사자료집』 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928-929쪽.

71) 안재홍, 『3·1정신과 국민정신-군인정신의 수립문제』, 『민세안재홍선집』 2, 1983, 413쪽.

다.⁷²⁾

또한 송탄면에서는 이날 오후 10시 독곡리를 비롯하여 5백여 명이 각 마을마다 봉화를 올리고 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진압하던 일경은 ‘拔劍發砲’하여 2명이 사망하고, 약간의 부상자가 있었다.⁷³⁾ 그리고 오성면에서도 안중리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부른 후 해산하였다.⁷⁴⁾ 이밖에도 이날 북면에서도 만세시위가 있었다고 하지만 분명한 활동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⁷⁵⁾

이어 4월 3일 오성면에서 金容成, 孔在祿, 李思弼 등은 주민들과 함께 봉오산에 봉화를 올리며 만세시위를 하였다. 김용성, 공재록, 이사필은 일경에 검거되었고,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김용성은 징역 2년, 이사필과 공재록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⁷⁶⁾ 이에 김용성은 불복하고 항소하였지만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고,⁷⁷⁾ 다시 상고하였지만 8월 21일 경성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⁷⁸⁾

또한 이날 평택 관내 각 지역에서도 만세시위가 있었다고 일제 측에서는 보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⁷⁹⁾ 이 보고에 의하면, 만세시위의 진압과정에서 경관과 충돌하여 서로 간에 약간의 사상자가 있었다. 이처럼 평택읍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자 일본인 상점은 철시를 하였고 자위방침을 도모하였다. 또한 군청당국에서는 4월 3일부터 적극적으로 이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개점을 유도하였다.⁸⁰⁾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만세시위는 4월 9일 고덕면과 10일 서탄면에서 전개되었다. 9일과 10일의 만세시위는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을 조사하는 경찰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다. 4월 들어 만세시위가 격렬해지자 평택당국은 자위단을 조직하였다.⁸¹⁾ 평택자위단은 경찰과 함께 만세시위의 주모자를 체포하기 위해 현장에 출장가기도 하였다. 4월 9일 고덕면에서는 자위단원 8명과 병정 8명이 만세시위 선동자를 검거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고 돌아갈 즈음 오후 8시경,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를 해산시키기 위해 병정이 쏜 총에 6, 7명이 죽고 1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⁸²⁾ 이어 10일에는 서탄면 금암리에서는 앞서 4월 2일에 있었던 만세시위 참여자를 현장조사 중이던 경찰관에 대한 실력행사로 대응하였다. 주민 40여 명이 경찰관을 포위하고 돌을 던졌다. 이어 주민들이 주재소를 습격하려고 하자 주재소 경찰관은 총을 쏘면서 주민들을 해산시켰다. 이로 인

72) 「윤기선 등 4인의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19년 6월 17일.

73) 『한민족독립운동사료』(3·1운동운동편 기1), 국회도서관, 1977, 373쪽 및 강덕상, 『3·1운동』(1), 353쪽.

74) 강덕상, 『3·1운동』(1), 353쪽.

75)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 531쪽.

76) 「김용성 등 3인의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5(3·1운동 재판기록), 409-410쪽.

77) 「김용성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19년 6월 30일.

78) 「김용성 판결문」, 경성고등법원, 1919년 8월 21일.

79)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 494쪽.

80) 『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자.

81) 『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자. 그러나 평택의 자위단은 언제,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평북 정주군의 自制團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단은 정주군 定州自制團이라 칭함. 제2조 본단은 輕舉妄動에 인하여 국민의 품위를 傷케 할 事를 無케 하기로써 목적함. 제3조 본단에 단장 1명, 각 부단장 1명 及 간사 약간을 置할 사. 제4조 본단은 소요 주모 또는 선동자의 침입을 예방하며 彼等의 유혹과 협박에 인하여 부화뇌동하는 폐가 無케 하여서 일반야민의 安堵樂業을 期케 할 사. 제5조 본 단원은 誰某라도 불온한 행위가 有하거나 또는 유언허설을 做出하여 양민을 誣惑케 하는 자를 발견할 시는 卽速키 단장에게 보고할 사. 단장은 前項의 보고를 접수한 시는 直히 경찰관현에게 고발할 사. 제6조 본단의 사무소는 정주군 정주면사무소에 置할 사. 제7조 본단원은 관청의 게시 또는 명령사항은 절대로 복종할 사. 제8조 급후 본단에 가입코자 하는 者 有한 시는 본단의 役員會議의 결정에 의하여 가입케 함을 得함.”(『매일신보』 1919년 4월 18일자)

82) 『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자; 이병헌, 『3·1운동비사』, 881쪽.

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하였다.⁸³⁾ 이밖에도 이날 북면 사리와 수월암리에서도 주민들이 만세를 부른 후 해산하였다.⁸⁴⁾

이처럼 3월 말과 4월 초에 평택지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습격을 당하자 9일경 제79연대 소속의 육군보병대위 成瀨濤 중대장 등 1개 중대를 파견 평택에 수비대를 설치하였다. 이 수비대는 9일 고덕면과 10일 서탄면 만세시위를 진압하는데 앞장섰다. 이로 인해 서탄면에서는 1명, 고덕면에서는 6,7명이 희생되었고, 수십 명이 부당당하였다. 또한 4월 15일에는 총독부 工藤莊平 총무과장을 보내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하였다.⁸⁵⁾ 이에 비해 같은 날 현병대는 경찰관주재소가 주민들의 습격 대상이 되자 栢峯里, 鳳南里, 安仲里, 西井里에 있던 주재소를 철수시켰다.⁸⁶⁾ 이러한 조치는 평택지역의 만세운동이 그만큼 격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5월 10일 평택지역 서해안 일대에서 수천 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고 주재소를 습격하였다⁸⁷⁾는 보도가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세시위가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독립단이 조직되어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고덕면 사는 황준재와 서울의 황인재는 임정의 특파원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4월 15일 일경에 검거된 바 있다.⁸⁸⁾

3월 9일 현덕면 계두봉과 옥녀봉에서 시작된 평택지역 만세운동은 4월 중순경에 이르러 대체로 진정되었다. 그러나 일제 측의 보고에 의하면, 음력 8월에 다시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돌 정도로 여전히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해 저항적이었다.⁸⁹⁾

이상에서 살펴본 평택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검거되었던 중심인물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평택지역 만세운동 중심인물

이름	나이	직업	형량	비고
이도상	30	미곡상	징역 8개월	경성고등법원
목준상	29	미곡상	징역 8개월	경성고등법원
심헌섭	32	농업	징역 8개월	경성고등법원
한영수	28	농업	징역 8개월	경성고등법원
최만화	24	농업	징역 6개월	경성복심법원
안육만	20	농업	징역 1년	경성고등법원
안희문	21	농업	징역 6개월	경성고등법원
황태순	31	농업	징역 6개월	경성지방법원
정수만	20	농업	징역 6개월	경성복심법원
홍기성	36	농업	징역 6개월	경성지방법원
박성백	30	농업	징역 1년	경성고등법원

83)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 552쪽 및 강덕상, 『3·1운동』 (1), 368쪽; 『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자; 이병헌, 『3·1운동비사』, 881쪽; 『신한민보』 1919년 6월 3일자.

84) 이병헌, 『3·1운동비사』, 881쪽.

85) 『매일신보』 1919년 4월 19일자.

86)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 629쪽; 강덕상, 『3·1운동』 (1), 377쪽; 「조선3·1독립소요사건」,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6,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629쪽.

87) 『신한민보』 1919년 6월 24일자.

88) 『신한민보』 1919년 6월 30일자.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89)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I, 90쪽;

최구현	22	농업	징역 1년	경성고등법원
유동환	24	농업	징역 1년	경성고등법원
전영록	20	농업	징역 1년	경성고등법원
유만수	26	농업	태 90	경성복심법원
김봉희	29	농업	태 90	경성복심법원
윤기선	54	면장	무죄	경성지방법원
윤교영	39	농업	무죄	경성지방법원
한성수	32	면서기	무죄	경성지방법원
윤대선	55	교사	무죄	경성지방법원
김용성	26	서당교사	징역 1년	경성고등법원
공재록	25	농업	징역 1년6개월	경성지방법원
이사필	32	농업	징역 1년6개월	경성지방법원

<그림> 평택지역 3.1운동 당시 만세시위가 전개된 곳⁹⁰⁾



4. 맺음말

이상으로 평택지역의 3·1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평택지역 3·1운동은 서울보다 10여 일 늦은 3월 9일부터 시작하여 4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면에서 전개되었다. 일제의 한 기록에 의하면 수원, 수안, 안성과 마찬가지로 '가장 광포한 시위' 중의 하나였다. 이와 같은 평택 3·1운동의 역사적 위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평택의 3·1운동의 역사적 위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서울보

90) 『평택시사신문』 2012년 3월 7일자.

다 늦었지만 3월 9일 첫 현덕면 계두봉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는 4월 10일까지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여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택인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택지역의 중심지인 평택역이 있는 병남면을 비롯하여 서면, 북면, 송탄면, 현덕면, 고덕면, 청북면, 서탄면, 오성면, 포송면 등 10개의 전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드문 예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평택의 만세운동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수원지역 및 안성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첫 만세시위를 전개한 현덕면의 경우 수원지역의 만세시위의 영향을 받았으며, 평택의 만세시위는 안성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즉 안성의 원곡과 양성에서 전개되었던 3.1운동은 평택의 영향을 받아 4월 초에 대대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만세운동에는 평택지역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셋째는 일제의 평가처럼 전국적으로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평택 전 지역에서 전개하였던 4월 1일의 만세시위는 일제가 “가장 광포한 만세시위”로 인식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전 주민이 참여할 정도로 독립의지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택인들이 일제의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평택지역 3.1운동의 원인과 배경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⁹¹⁾

넷째, 평택지역 3.1운동을 전개하는데, 천도교의 조직과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⁹²⁾ 평택지역 천도교는 현덕면을 비롯하여 북면, 고덕면 등 주로 농촌지역이지만, 3월 9일 첫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평택지역 3.1운동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평택지역의 3.1운동은 3.1운동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1920년대 다양한 대중운동으로 이어졌다.

91) 오늘 발표한 박철하의 발표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보여 진다.

92) 이에 대해서는 성주현, 「평택지역 3.1운동과 천도교」을 참조할 것.

안재홍의 ‘기미운동’과
‘임정법통성’의 역사의식

김인식(중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안재홍의 ‘己未運動’과 임정법통성의 역사의식

김인식(중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머리말
2. 3·1민족운동의 용어 설정
3. 3·1민족운동에 참여한 활동 배경과 계기
4. 대한민국청년의교단 활동
5. 3·1민족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계기성·법통성 인식
6. 맺음말

1. 머리말

일제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 다른 식민지 지배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헌병경찰정치를 실시하였다. 1919년 3월 한민족은 일제의 무자비한 폭압에 온 겨레가 온 나라를 들어 저항하였고, 이러한 민족독립의 열기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부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도약으로 이어졌다. 3·1민족운동의 진행 과정 중¹⁾ 한민족은 국내외의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를 세웠다.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사에서 최초의 민주공화정 체제의 정부였으며, 비슷한 시기 블라디보스토크·서울에서 각각 수립된 대한국민의회·한성정부도 모두 민주공화제를 선포하였다. 이들 임시정부는 9월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이후 민족운동의 과정에서 復關主義는 도태되고 ‘주권재민’의 공화제가 지향점이 되었음은,²⁾ 3·1민족

1) 우선 용어 문제부터 정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3·1운동’이라고 통칭하는 용어를 ‘3·1민족운동’으로 표현하였다.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하지는 않지만, ‘3·1운동’은 적절한 역사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주제인 안재홍의 경우는 ‘3·1운동’·‘3·1투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己未運動’을 더 자주 썼다. 그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여기에는 3·1민족운동을 만세시위운동에 한정시키지 않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 3·1민족운동의 전 과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안재홍에게는 단순히 과거를 따져보는 역사인식의 차원을 넘어, 일제 식민지시기는 물론 8·15해방 후의 신국가건설운동에서도 실천론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역사의식이 있다. 안재홍이 ‘기미운동’이라 규정한 역사의식과 일치하지만, 이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까지도 3·1민족운동의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이미 김진봉이 제기하였다. 이에 따르면, 3·1민족운동의 전 과정은 ①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선포할 때까지 운동의 준비 시기, ②1919년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거족적인 봉기로 운동이 전개되는 시기, ③이해 5월부터 일제의 보복행위로 말미암아 지하운동으로 변모하는 한편, 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활동이 개시되는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金鎮鳳, 「3·1運動」, 한국사연구회 편, 『(제2판)한국사연구논문』(지식산업사, 1987. 2), 499쪽.

운동과 이후 민족운동의 의의로 반드시 지적되는 대목이다.³⁾

1920~30년대 들어 민족운동의 이념이 여러 갈래로 분화되었고, 8·15해방 후 여러 정치 세력들 사이에 ‘민주주의 논쟁’⁴⁾이 또한 치열하였지만, ‘주권재민’의 ‘민주공화’ 정체의 정부를 구성한다는 대의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었다. 이 점에서 3·1민족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이의 법통 계승을 중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3·1민족운동 또는 이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역사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안재홍은 식민지시기에는 3·1민족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법통성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역사의식이 8·15해방 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3·1민족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법통성을 의당 전제하여 중시하였다. 그는 임시정부가 3·1정신⁵⁾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법통성을 지녔고,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법통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8·15해방 후 좌익 계열과 전혀 다른 정치 노선을 지향한 역사의식이자 중간우파 민족주의자들이 공유한 기반이었다.

3·1민족운동에 참여·활동한 경험, 이를 계승·비판하여 교훈을 도출하면서 형성된 3·1민족운동像(인식)은, 8·15해방 후 각 정치세력들에게 자신들의 정치노선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었다. 이 논문은 3·1민족운동에 참여한 경험과 3·1민족운동像이 8·15해방 후 각 정치세력들의 국가건설운동에 어떠한 논리로 작용하였는지를 살피는 작업의 일환이다.

안재홍에게 한정하여 말하면, 그가 3·1민족운동에 참여한 경험과 이에서 형성된 3·1민족운동像은, 3·1민족운동에서 신국가건설의 정통성·법통성과 국가건설의 이상향을 도출하는 역사의식으로 이어졌다. 3·1민족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8·15해방 후의 신국가건설운동에서 중경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노선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시 신생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성으로 표현되었다. 해방정국의 중간우파 민족주의자들의 정치노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중간우파의 대표되는 이론편안 안재홍은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역사의식의 원형으로서, 안재홍이 3·1민족운동에 참여한 계기와 활동상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성론을 형성하는 배경이었음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안재홍이 3·1민족운동을 어떠한 용어로 규정·표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가 주로 사용한 ‘기미운동’에는 단지 한 사건을 가리키는 의미를 넘어 3·1민족운동을 인식하는 그의 시각

2) 이는 커다란 흐름에서 보아 그렇다는 말이고, 3·1민족운동 이후에도 구체제인 전제군주제로 복귀하려는 북벽주의 경향은 남아 있었다. 이 점은 李賢周, 「3·1運動 직후 국내 臨時政府 樹立運動의 두 類型-‘共和主義’ 및 ‘復關主義’ 운동에 대한 一考察」, 『仁荷史學』第8輯(仁荷歷史學會, 2000. 12)을 참조.

3)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94. 2), 45~46쪽; 강만길, 『20세기 우리 역사』(창작과 비평사, 1999. 1), 53~54쪽.

4) 8·15해방 후 좌우익 계열이 모두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는 일치하였지만, ‘민주주의’의 실제와 내용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8·15해방 후 민주주의 논쟁은 여현덕, 「8·15 직후 민주주의 논쟁」, 박현채 外著, 『解放前後史의 認識』3(한길사, 1987. 12): 朴榮濬, 「解放直後 知識人들의 民主主義論爭에 關한 研究-國際秩序 認識 및 國家建設 路線에 있어서의 對立을 中心으로」(서울大學校 大學院 外交學科 碩士學位論文, 1988. 2)을 참조.

5) 본문에서 자주 확인하였지만, ‘3·1정신’은 안재홍도 많이 사용하였던 용어로, 이는 말 그대로 3·1민족운동의 정신을 가리켰다. 여기에는 3·1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된 根因으로서 민족성·민족정신, 운동의 목표와 방법론을 모두 포함한다.

이 담겨 있다. 다음으로 3·1민족운동 이전 그의 활동상과 그가 3·1민족운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서술하였다. 이어 안재홍이 3·1민족운동의 범위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청년의교단 활동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3·1민족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계기성을 어떻게 임시정부법통론으로 연결시켜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2. 3·1민족운동의 용어 설정

안재홍은 3·1민족운동의 ‘독립만세의 응성국은 아우성’에서 민족 안의 민중, 나아가 민중의 민족성을 보았다. 1919년 3월의 이 ‘아우성’은 ‘二千萬 總意’에 의거하였으므로 계급분열이 전혀 없었던⁶⁾ 전민족이 일치단결한 민족항쟁이었다. 안재홍은 3·1민족운동에서 민중이 자각하여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나가는 역사발전의 이상향을 보았고, 8·15해방 후에는 3·1정신을 신민족주의 이념의 原型으로 설정하였다. 이 점에서 그의 3·1민족운동像은 매우 중요한데, 그가 3·1민족운동을 어떤 용어로 규정하였는지 살펴본다.

안재홍은 식민지시기에는 3·1민족운동을 ‘己未運動’으로, 8·15해방 후에는 ‘기미운동’과 ‘三一運動’·‘3·1鬪爭’⁷⁾이라는 용어를 병용하였다. 우선 식민지시기의 용례를 보면, 3·1민족운동을 “己未의 運動이 조선인의 民族運動史上 특필한 一紀元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全天下에 떨치던 이 民族的 革命運動의 氣焰이…”라고 평한 대목이 보인다.⁸⁾ 여기서 안재홍은 3·1민족운동을 ‘己未의 運動’이라 명명하고, ‘조선인의 民族運動史上 특필한 一紀元’이라 평가하며, 이를 ‘民族的 革命運動’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己未의 運動’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⁹⁾

8·15해방 후의 용례를 보면,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처음 맞는 3·1민족운동 기념일에 안재홍은 ‘三一運動의 回顧와 그 性格’을 규정하면서, “己未年의 三一運動은 올해로 꼭 三十週年이 되었다. 己未運動 그 당시, 祖國이 아주 망한 지 十年만에 二千萬 民族은…”¹⁰⁾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三一運動’과 ‘己未運動’을 병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 자신이 참여하였던 대한민국청년의교단 활동으로 수감되었던 사실을 “나는 日帝時代 己未運動에서 한번 收監되고”¹¹⁾라고 표현하였다. 나아가 ‘기미운동’을 임시정부법통성과 관련시켜 “己未運動

6) 「三一 大義의 再宣揚-解放後 첫 三一紀念日에」(1946. 3. 1 『漢城日報』 記名社說), 安在鴻選集刊行委員會 編, 『民世安在鴻選集』2(知識産業社, 1983. 2), 102쪽. 앞으로 『民世安在鴻選集』을 『選集』으로 줄임.

7) ‘3·1투쟁’을 사용한 예는 「3·1운동의 회고와 정국 사관(私觀)」, 『신천지』(1949년 3월호)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選集』7(지식산업사, 2008. 3), 134-137-138쪽 ; 「政治指導者로서의 孫秉熙氏-三一運動 側面的 究明」, 『三千里』(1949. 3) [『選集』4(지식산업사, 1992. 9), 216쪽] ; 「3·1절 추도사」(1949. 3. 1), 『選集』7, 142쪽 ; 「三一精神과 民族大義」(1949. 3. 1 『漢城日報』 社說), 『選集』2, 408쪽 ; 「三一精神과 國民精神-軍人精神의 樹立問題」(1949. 3 掲載誌 不明), 『選集』2, 412쪽 ; 「3·1소년단 선언」(1950. 5. 21 전후로 추정), 『選集』7, 260쪽.

8) 「그러면 이 일을 어찌하랴-憂慮할 朝鮮人の 心的 傾向」(1924. 6. 4 『時代日報』 사설), 『選集』1(知識産業社, 1981. 6), 55쪽].

9) 「朝鮮人の 政治的 分野-旗幟를 선명히 하라」(1925. 1. 21 『朝鮮日報』 사설), 『選集』1, 94쪽 ; 「過去를 回顧하면서」(1926. 8. 4 『朝鮮日報』 사설), 『選集』1, 159쪽에는 ‘己未運動’이란 말이 보인다.

10) 앞의 「三一精神과 國民精神」(1949. 3), 『選集』2, 411쪽.

11) 「韓民族의 基本進路-新民族主義 建國理念」(1948. 10 강연, 1949. 5 刊行), 『選集』2, 336쪽.

이래 民族運動의 法統을 吶號하는 重慶臨時政府”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²⁾

안재홍이 3·1민족운동을 가리켜 ‘기미운동’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여 명명한 데에는, 3월 1일을 기점으로 3·4·5월의 정점을 거쳐 거의 1년 간 전개된 독립운동이 시간상으로 기미년을 덮는다는 산술상의 인식¹³⁾도 있었다. 그러나 더 근본에서는, 3·1민족운동의 연장으로 1919년 기미년에 시도된 임시정부수립운동, 이의 산물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 3·1민족운동과 동질성과 연결성을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뒤에 보겠지만, 안재홍은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3·1정신’의 대의를 계승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3·1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 가입하여 이를 주도하였는데, 이미 이때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3·1민족운동의 연속으로 인식하였다. 안재홍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의 활동, 이로 인한 자신의 첫 번째 옥고도 ‘기미운동’의 범주에 넣었는데, 그에 게 대한민국청년외교단 활동은 바로 3·1민족운동이었다.

안재홍은 자신의 신민족주의가 수감 생활 동안의 사색에서 우러나왔음을 회고하면서 “나는 日帝時代 己未運動에서 한번 收監되고”라고 밝혔는데,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사건을 바로 ‘기미운동’으로 지칭하였다.¹⁴⁾ 그는 자신에게 첫 번째 옥고를 가져온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사건을 이렇게 ‘삼일운동’으로 등치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내 己未의 해에 南獄에 매인 지 三, 四年에”¹⁵⁾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일제 식민지시기부터 지녔다. 8·15해방 후에도 “己未年에는 未決 既決 합하여 三十數朔 獄中에 있었다.”¹⁶⁾ “己未運動 적에 늦게 大邱獄에 들어가 갖은 苦楚를 견디어내면서 未決 既決 三十數朔 지냈었다.”¹⁷⁾고 회고하면서, 청년외교단 사건으로 겪은 최초의 옥고를 3·1민족운동과 연관시켰다. 1949년의 ‘3·1절’ 추도사는 “오늘 단기 4282년 기축(己丑) 3월 1일에 전(前) 청년외교단 대표 안재홍은 삼가 돌아가신 3·1투쟁 대표 애국선열들의 정령께 고(告)하나이다.”고 시작하였다.¹⁸⁾ ‘3·1절’ 추도사에서 자신의 광

12) 「民政長官을 辭任하고-岐路에 선 朝鮮民族」, 『新天地』(1948. 7) [『選集』2, 262쪽]. 8·15해방 후 ‘기미운동’을 사용한 또 다른 예는 「夢陽 呂運亨씨의 追憶」(1947. 9. 掲載誌 未確認), 『選集』2, 199쪽; 「政治指導者로서의 孫秉熙氏」(1949. 3), 『選集』4, 200·216·217쪽 [213쪽에서는 ‘己未年運動’이란 말도 사용하였다]; 「3·1운동의 회고와 정국 사관(私觀)」, 『신천지』(1949년 3월호) [『選集』7, 134쪽]; 「牢獄深人人不到」, 『三千里』(1949년 12월호), 『選集』5(知識産業社, 1999. 12), 103쪽을 들 수 있다. ‘3·1운동’을 사용한 예로는 「3당 공동 성명」(1946. 1. 24), 『選集』7, 45쪽; 「建國救民運動의 高調-非常國民會議 發足에」(1946. 2. 13 서울中央放送), 『選集』2, 92쪽; 「석오(石吾) 이(李) 선생 추도사」(1946. 3. 15 『한성일보』), 『選集』7, 48쪽; 「丙午抗日義兵哀辭」(1946. 5. 31 忠南 洪城邑 追悼大會에서), 『選集』4, 191쪽; 「3·1운동의 회고와 정국 사관(私觀)」(1949년 3월호), 『選集』7, 134쪽; 위의 「政治指導者로서의 孫秉熙氏」, 『選集』4, 200·213·214·216쪽; 「三一精神과 國民精神」(1949. 3), 『選集』2, 413쪽 등이 보인다.

13) “이른바 1919년 운동으로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기미운동 즉 3·1투쟁”이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겼다고 보인다. 「3·1운동의 회고와 정국 사관(私觀)」(1949년 3월호), 『選集』7, 134쪽. 여기서는 ‘기미운동’과 ‘3·1투쟁’을 병용하였다.

14) 앞의 「韓民族의 基本進路」(1948. 10 강연), 『選集』2, 336쪽.

15) 「讀書開進論-一生을 일하고 一生을 읽으라」, 『學燈』(1935. 3) [『選集』5, 69쪽].

16) 「觸穢哲學의 使徒로 되었다」, 『三千里』(1949. 2) [『選集』5, 100쪽].

17) 앞의 「牢獄深人人不到」(1949. 12), 『選集』5, 103쪽. 이상에서 보았듯이, 안재홍은 8·15해방 이후 더욱 분명하게 청년외교단 활동과 3·1민족운동을 연관시켜 표현하였다.

18) 「3·1절 추도사」(1949. 3. 1), 『選集』7, 142쪽. 이 글은 필사원고인데, 어디서 추도사를 낭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전 청년외교단 대표’라는 추도자의 자격이 『選集』7에는 빠졌으나, 본래의 필사원고에는 ‘전(前) 청년외교단 대표 안재홍’이라는 구절이 있다. 안재홍이 3·1민족운동의 추도사를 청년외교단 대표의 자격으로

은 이력 가운데 ‘전 청년의교단 대표’를 내세움을 보더라도, 이 활동을 3·1민족운동으로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 식민지배 아래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8·15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도 3·1민족운동의 영향이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기미(己未)의 삼일운동이 폭발되고 민족해방의 혁명세력이 해외정권으로 집결”¹⁹⁾되었다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獨立運動의 總本營으로서의 臨時政府’²⁰⁾라고 규정하였다. 안재홍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민족해방의 혁명세력이 집결한 해외정권으로서 독립운동의 총본영의 위상을 부여하여왔다. 그는 혁명세력의 집결체로서 해외정권이라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은 바로 3·1민족운동에서 연원하며,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야말로 3·1민족운동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그는 ‘3·1투쟁’의 연장선에서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을 요청하는 사절을 파견하고, 서로군정서·북로군정서 등이 설치되어 압록강을 넘나들며 투쟁하였으며, 이는 청산리전투의 전과 등에 보이는 ‘영속하는 民族鬪爭의 과업’으로 이어졌다고 파악하였다. 안재홍이 ‘3·1민족운동’을 ‘기미운동’으로 표현한 데에는, 1919년간의 민족운동을 연속성으로 인식하는 역사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3. 3·1민족운동에 참여한 활동 배경과 계기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은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났고, 이후 항쟁의 불길은 전국에 퍼졌으나, 안재홍은 3·1민족운동의 선두에 나서기를 주저하였다. 혹심한 일제 지배하에 “전후 9차에 걸쳐 7년 3개월의 옥고를 겪은”²¹⁾ 그가, 만세·시위운동의 중심에 뛰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 침체하였던 그의 개인사 때문이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14년 여름에 귀국한²²⁾ 안재홍은, 다음해인 1915년 5월 仁村 金性洙가 인수·경영하는 중앙학교의 學監으로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았다.²³⁾ 이 시기는 고난에 찬 안재홍의 전 생애에서 예외라 할 만큼 평온한 생활이었으나,²⁴⁾ 朝鮮産織獎勵契에 가담한 활동으로 인하여 일제 경찰의 압박을 받아 1917년 3월 중앙학교를 사임해야만 하였다.

조선산직장려제²⁵⁾는 1914년 9월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교원양성소²⁶⁾ 학생 李用雨가 경

남독한 데에서도, 청년의교단 사건을 3·1민족운동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였음을 확인한다.

19) 「석오(石吾) 이(李) 선생 추도사」(1946. 3. 15), 『選集』7, 48쪽.

20) 「三一精神과 民族大義」(1949. 3. 1), 『選集』2, 408쪽.

21) 千寬宇, 「民世 安在鴻 年譜」, 『創作과 批評』통권 50호(創作과 批評社, 1978년 겨울), 212쪽.

22) 안재홍은 1914년 7월 와세다(早稻田) 대학 경경학부를 졸업하였다. 「안재홍 신문조사」(1936. 6. 2 경성중로 경찰서) [平澤市獨立運動史 編纂委員會, 『평택시독립운동사』(평택시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2004. 8), 606쪽].

23) 중앙학교는 1915년 4월 27일 仁村 金性수가 학교를 인수하였는데, 5월 4일 石農 柳瑾을 교장으로, 안재홍을 學監으로 초빙하고, 김성수 자신은 평교사의 자리를 맡았다. 仁村紀念會, 『仁村金性洙傳』(仁村紀念會, 1976. 2), 107~108쪽.

24) 1915년 7월 안재홍은 장남 畧鏞을 낳았으며, 1916년에도 중앙학교의 학감으로 평탄하게 보냈다.

25) 조선산직장려제가 발의·조직되고 검거되는 전체의 과정, 임원과 계원의 명단은 일제 관헌 자료인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260~264쪽의 「京城高普敎員養成所內秘密結社檢舉」에 언급되어 있다.

26) 1910년대에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경성고보 부설 교원양성소 하나뿐이었다.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국립인 漢城師範學校와 사립인 國民師範學校 등은 폐지당하였고, 경성사범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설치된 때는

제자립을 통한 ‘국권회복’의 목적을 지닌 모임을 발의하고, 동기생 6명과 함께 협의한 데에서 발단하여,²⁷⁾ 1915년 3월 교원과 사회인사가 합세하여 조직한 실력양성운동 단체였다.²⁸⁾ 이때 ‘실력양성’이란 바로 자본주의문명을 수립함을 뜻하였는데, 식민지 조선에 서구 또는 일제가 이식한 자본주의 문명을 한민족이 몸소 실험함으로써 국권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조선산직장려계는 ‘自作自給’으로써 민족자본을 축적·육성·성장시킴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한 국권회복을 꾀하였다. 이 점에서 이단체는 안재홍도 참여하였던 1920년대 초의 물산장려운동과 취지·목적은 같이 하였다.²⁹⁾

앞서 이용우의 발언에서 보듯이, 조선산직장려계는 경성고보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통하여 청년학생들에게 민족혼을 고취시키고 일제에게 빼앗긴 경제권을 회복하자는 경제자립운동³⁰⁾에서 출발하였으나, 기성인들이 참여함으로써 활동의 목적과 범위가 민족자본 형성이라는 구체성을 확보하여 나갔다. 이 계의 운영은 株式制를 채택하여 1株를 20圓으로 하고 株式 수를 한정하여 계에 가입한 계원은 한 사람이 10명의 株主를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이 단체가 민족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민족자본의 적립을 목표로 삼았음을 보여준다.³¹⁾ 이는 이 단체의 일반계원이었던 李康賢이 『學之光』에 투고한 다음 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하면 朝鮮産織獎勵契라 함은 무엇을 謂함이뇨? 아! 朝鮮의 原料로 朝鮮에서 朝鮮人이 紡績하여 朝鮮人이 製織하여 朝鮮人이 着用하자 함이니 그 目的이 如何하며 其將來가 如何할가? 贊成人가 不贊成人가? 나는 朝鮮人이오 朝鮮人은 何人을 勿論하고 贊成치 아니치 못할지라.”³²⁾ 이러한 민족자립경제의 의지는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으로 재현되었고, 京城紡織과 평양의 메리야스공업과 고무공업 같은 민족자본 형성에 정신상의 바탕을 제공하였다.³³⁾

31) 민족운동 이후였다. 趙東杰, 「1910년대 獨立運動의 變遷과 特性」, 『한민족독립운동사』3(국사편찬위원회, 1988) [趙東杰,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지식산업사, 1989. 12), 380쪽].

27) 이들은 이의 일환으로 같은해 10월 졸업여행으로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와 『東遊誌』 90부를 만들어 동급생들에게 배부하였다. 1915년 1월 이용우가 聖經研究會에서 다시 “학생 및 청년들에게 조선의 혼을 고취하여 정신적 결합을 도모하고, 일본인에게 빼앗기고 있는 각종 사업을 조선인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모임을 설립하여 민족부흥에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조직 착수에 본격 나섰다. 이용우는 당시 徵文義塾 교사였던 南亨祐와 상의하였고, 그의 소개로 崔奎善의 자문과 동의를 받았다. 이들은 학생들만으로는 조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남형우를 중심으로 각종 중등학교 교사와 협의하여 1915년 3월 조선산직장려계를 조직하였다. 위의 번역문은 류시중·박병원·김희곤 역주, 『국역 고등경찰요사』(선인, 2010. 1), 450~451쪽.

28) 『高等警察要史』에는 稷長 崔奎翼을 비롯한 役員 16명, 일반계원 128명의 명단이 소속 또는 주소를 밝힌 채 기재되어 있다. 역원 가운데 회계 閔裕鎬와 協議員 朴重華(徵文義塾長) 두 사람은 일반계원에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임원은 모두 일반계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합산하면 일경에게 체포될 당시의 계원은 모두 130명이 된다.

29)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역사비평사, 1992. 1), 142~146쪽; 박찬승, 「국내 민족주의 좌우파 운동」, 강만길 외 편, 『한국사-민족해방운동의 전개』15(한길사, 1995. 4), 120~121쪽.

30) 이지원, 「3·1운동」, 강만길 외 편, 『앞의 책』, 93쪽. 조동걸은 이러한 조선산직장려계의 성격을 ‘경제사상운동 조직’으로 파악하였다. 趙東杰, 「앞의 논문」, 『앞의 책』, 380~381쪽.

31) 朴容玉, 「救國運動과 서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六百年史』(서울特別市, 1981. 12), 60쪽.

32) 李康賢, 「朝鮮産織獎勵契에 對하여」, 『學之光』第六號(1915년 7월 23日刊), 242쪽. 박찬승은 조선산직장려계를 비밀결사로 이해하는 일부 논자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 단체는 어디까지나 공개된 단체였다고.”고 분명하게 짚었다. 아마 조선산직장려계를 비밀결사로 파악하는 데에는 『高等警察要史』에서 이 단체를 비밀결사로 파악한 데에서 말미암는다고 보인다. 그러나 李康賢이 「위의 글」에서 조선산직장려계 자체를 표제화하여 거론할 만큼, 1915년 7월의 시점에서 이 단체는 합법단체로 세상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

조선산직장려계의 구성원에는 당시 국내의 이름있는 신지식층은 거의 망라되었다 할 정도로 많은 인사들이 계원으로 참여하였다.³⁴⁾ 안재홍은 귀국한 뒤 1살 연배인 최남선이 운영하는 新文館에 자주 출입하였으며, 최남선과 함께 문화사업을 일으킬 뜻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최남선은 조선산직장려계의 임원인 會計를 맡았다. 한편 조선산직장려계에는 중앙학교의 교사들도 많이 가담하였다.³⁵⁾ 우선 稷長이 중앙학교 교사 崔奎翼이었고, 동 학교장 柳瑾은 이 단체의 임원인 협의원이었으며,³⁶⁾ 학교 경영자인 김성수, 교사 李奎榮·白南奎도 일반 회원이었다. 아마 이 당시 최남선-중앙학교와 맺은 인맥 등이 작용하여 안재홍이 조선산직장려계에 참여하였다고 보인다.³⁷⁾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안재홍의 인맥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 이후 그의 민족운동의 영역이 확대·심화되는 기반이 되었다.

일제 경찰은 조선산직장려계를 주시하던 중 1917년경 이 단체를 내사하였고, 이 가운데 앞서 본 『東遊誌』에서 ‘불온문구’를 발견함으로써, 계원들을 1917년 3월 5일 보안법 위반으로 검사국에 송치하였다. 이 무렵 안재홍은 ‘불온한 언동’을 왕성하게 일삼았다는 이유로 경기도 내무부장 아리가(有賀光豊)에게 호출 당하여 ‘장광설의 훈계’를 들었다. 이때 안재홍은 앞으로 행동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나, 순응하지 않았으므로 중앙학교에서 ‘放逐’당하였다.³⁸⁾ 그의 ‘불온한 언동’은 학교 안팎에서 안재홍이 행한 교육내용과 사회 활동을 가리켰는데, 조선산직장려계의 임원·회원들이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 이 일로 안재홍이 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중앙학교의 학감을 사임하도록 압박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중앙학교의 교장이었던 유근도 이 단체의 협의원이었는데 학교장을 그만두었다. 유근에 이어 김성수가 중앙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한 때가 1917년 3월 30일이었으니,³⁹⁾ 안재홍도 이 무렵 중앙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보인다. 헌병대와 경찰이 내리누른 외압 때문에 그는 중앙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직장을 잃은 안재홍은 낙향하여, 어둡고 답답한 마음 속에서도 시국을 생각하며 1918년을 보냈다. 그가 28세였던 이해 5월 차남 旻鏞이 태어났으니 가장으로서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웠고, 실직의 고통으로 인하여 실의와 상심에 빠져 있던 중이었으므로, 3·1민족운동의 중심에 선 결과 돌아올 감옥살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터였다. 8·15해방 뒤 안재홍은 “3·1운동 때에 나는 그 선두에 나서기를 아꼈다.”고 솔직히 표현하였는데, “직장에서 방축되어 失意中에 부단히 시국대책을 연구하는 끝이었으므로, 아무것도 못하고 상심만 하던 내가,

33) 朴容玉, 「앞의 논문」, 61쪽.

34) 박찬승은, 이 단체의 창립 과정에서 최남선이 주도 구실을 하였고, 朴重華(徽文義塾長)가 협의원으로 참여한 점을 볼 때, 이 운동은 한말의 청년학우회 계열의 ‘先實力養成 後獨立’이라는 이념을 계승하여, 청년학우회 계열의 인사들이 주도하였다고 파악하였다. 박찬승, 『앞의 책』, 142~146쪽. 한편 조동길은 130명의 계원이 당시의 지식청년을 전국 규모로 망라하였음을 지적하면서,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서북지방의 중산층 지식청년이 큰 타격을 입은 뒤, 여타의 청년들이 조선산직장려계로 일단 연락망을 갖춘 셈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단체는 ‘개몽주의 우파 모임’의 성격을 지녔다. 趙東杰, 「앞의 논문」 [趙東杰, 『앞의 책』, 381쪽].

35) 일반계원 가운데는 경성교원양성소 소속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중앙학교가 안재홍을 포함하여 6명으로 두 번째 다수를 차지하였다.

36) 『高等警察要史』에는 柳瑾의 소속이 없으며, 주소를 ‘京城府 桂洞 四九番地’로 기재되어 있다.

37) 안재홍이 조선산직장려계에서 활동한 내용은 김인식, 『중도의 길을 걸은 신민족주의-안재홍의 생각과 삶』(역사공간, 2006. 2), 36~40쪽을 참조.

38) 「제목 미확인」, 『민주조선』(1948. 4) [千寬宇, 「앞의 논문」, 220쪽에서 다시 인용].

39) 앞의 『仁村金性洙傳』, 782쪽.

나서면서 정역살이를 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가없어…”라고 당시 심경을 토로하였다.⁴⁰⁾ 또 한편으로 보면, 당시 그는 “불온분자라고 해서 탄압 구속이 심해야 농촌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도 못하였다.⁴¹⁾

안재홍은 불온분자의 낙인이 찍혀 낙향하였고, 3·1민족운동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던 차 “三月 一日이 훨씬 지난 그믐경 어느 날 밤, 어느 農村 높다란 봉우리에 우두커니 홀로 서서 바라본즉, 遠近 數百里 높고 낮은 峰과 峰, 넓고도 아득한 平原과 河川地帶까지, 點點이 피어오르는 화룻불과, 天地도 들썩거리는 듯한 獨立萬歲의 웅성국은 아우성은, 문자 그대로 人民反抗이요 民族抗爭”임을 깨달았다.⁴²⁾ 안재홍은 “손에 寸鐵도 안 가진 二千萬이 國內 國外, 내 民族 살고 있는 곳곳마다, 쫓아도 죽여도 그저 다만 아우성치면서 모여들고 덤벼드는, 문자 그대로의 民族抗爭이 떡 벌어졌던 것”을 그대로 목격하였다. 그는 이를 “참으로 生存의 抗爭은 雄大한 것이요, 正義의 싸움은 英勇한 것이었다.”고 찬탄하였는데, 민중들의 항쟁에서 과감함을 뛰어넘는 비감함도 보았다. “「視死如歸」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正義의 抗爭이야말로 비로소, 죽는 것을 제 집에 돌아감과 마찬가지로 泰然히 여기게 되는 境地인 것이었다.”⁴³⁾는 회고가 이를 반영한다.

위에서 안재홍은 3·1민족운동을 목격한 감격의 순간을 ‘三月 一日이 훨씬 지난 그믐경 어느 날 밤’으로 슬회하였는데, 다른 곳에서는 1919년 3월 26·27일경의 벽찔던 광경을 다음과 같이 떠올렸다.

3월이라 26,7일 골에 어둔 저녁 조국의 산하에는 봉(峰)과 봉(峰), 들과 들, 마을과 마을, 무릇 내 민족 살고 있는 곳곳마다 그 점점이 피어오르는 불꽃과, 천지도 흔들리는 전민족의 “나도 살겠노라”의 아우성, 아아 참! 영웅적이면서 성도(聖徒)의 자질이였다.⁴⁴⁾

아마 1919년 3월 말경 안재홍은 향리 부근의 다소 높은 어느 봉우리에 올라, 인근의 마을 여러 곳에서 봉화 시위가 벌어짐을 목격하였음이 분명하다. 앞에서 본 “어느 農村 높다란 봉우리에 우두커니 홀로 서서 바라본즉, 遠近 數百里”라는 구절은, 그가 “나의 故鄉 平澤郡 杜陵리는 平原과 丘陵地帶에 있어, 海拔 數百尺쯤의 산마루에 오르면 遠近 수백리 山河가 둘러보인다.”⁴⁵⁾고 묘사한 대목과 상통하는 듯하다.

평택의 지리상의 위치를 보면, 동쪽은 안성시 공도읍과 용인시 남사면에 접하고, 서쪽은 황해안(서해안)과 접한다. 한편 남쪽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천안시 성환읍과 각각 접하

40) 「제목 미확인」, 『민주조선』(1948. 4) [千寬宇, 「앞의 논문」, 221쪽에서 다시 인용].

41) 「成熟한 機運에 點火-地方과 秘密 連絡다가 囹圄 三年 / 本社安社長 己未懷舊談」, 『漢城日報』(1946. 3. 2).

42) 여기서 ‘인민반항’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전민족항쟁임을 강조하는 데에서 그치면 될 터인데, ‘인민’을 넣어 ‘민중항쟁’과 같은뜻으로 사용하였다.

43) 이상의 인용은 「三一精神과 國民精神」(1949. 3, 『選集』2), 412~413쪽.

44) 「안민세 씨 담화-삼일정신에 환원하자」, 『새한민보』(1949. 9. 1) [『선집』7, 141쪽].

45) 「牢獄牢屋深深人不到」(1949. 12), 『選集』5, 108~109쪽. 안재홍은 두릉리의 산마루에서 바라본 인근 지역의 산들을 꽤나 자세히 거론하면서, 두릉리의 남산인 月明山(현 안재홍 생가의 남쪽에 위치)에 자주 올랐음을 말하였는데, 이 산도 그가 3·1민족운동의 광경을 바라본 하나로 추측된다.

고46) 북으로는 화성군과 오산시에 이웃하며, 구릉지가 서탄편 일대에 능선을 이루었다.47) 이러한 평택의 지리상의 위치를 현 고덕면·오성면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평택시를 둘러싼 인근 마을은 북으로 오산시·용인시, 동으로 안성시·천안시, 남으로 아산시, 서로 당진시·화성시이다.

평택 지역의 3·1민족운동은 서울보다 10여 일 늦은 3월 9일 첫 만세시위를 시작하여, 5월 1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개되었는데,48) 안재홍이 처음 목격한 감격의 광경은 평택 지역의 시위는 아니었던 듯하다. 평택의 첫 번째 만세 시위는 3월 9일 밤 현덕면의 핏볼 시위였고, 3월 11일 평택읍 내의 시위에 이어, 15일간의 정지 상태에 있다가 3월 31일 북면의 야막리와 봉남리의 주민 5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는데,49) 이 날 봉화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안재홍이 평택 지역의 시위를 목격하였다면 아마 4월 1일 밤의 시위였으리라 보인다. 4월 1일 밤 들어 평택역 앞에서 촉발된 시위를 시작으로 평택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밤 10시 반경 평택 주변 일대에 산봉우리마다 봉화를 올리며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10여 개 마을에서 3,000여 명의 군중이 평택역으로 모여들어 오전 2시까지 만세시위를 벌였다. 일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하여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같은날 부용면(평성)에서도 평택구읍 뒷산에서 봉화를 올리며 평택역 시위에 합세하였으며, 고덕면 울포리에서 500여 명의 농민들이, 청북면에서 수십 명이 마을에서 만세를 불렀다.50)

3월 말경 안재홍은 “무릇 내 민족 살고 있는 곳곳마다” “천지도 흔들리는 천민족의 ‘나도 살겠노라’의 아우성”을 확인하면서, ‘視死如歸’의 전기를 찾았고, 이전의 소극·방관의 자세를 털고 항쟁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전기의 계기는 3월 26·27일경 무렵부터 몸소 확인한 민중들의 ‘아우성’이었다. “봉화가 산과 산, 들과 들, 마을과 마을에 만 점의 별로 총총 박혔고, 대중의 아우성은 천지도 뒤집히는 세기의 위력으로 나타”난51) 광경은, 분명 그에게는 조선민족과 민중의 저력을 확신케 하는 체험이었다. 그는 온 겨레가 온 나라를 들어 항쟁함을 목격하면서, 개인사로 운동의 중심에 설 수 없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3·1민족운동의 후속 운동에 뒤늦게 참여하였다.

안재홍이 개인사로 3·1민족운동의 초기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3·1민족운동의 조직화 과정을 그 시점에서 전해 듣고 있었다. 그는 경성으로 자주 왕래하던 申翼熙 등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므로,52) 파리강화회의와 민족자결론에 따른 국외 인사의 움직임

46) 平澤市史編纂委員會, 『平澤市史』상권(봉명, 2001. 11), 43쪽. 이 책의 평택시 행정구역도를 참조.

47) 平澤市·京畿道博物館, 『平澤의 歷史와 文化遺蹟』(1999), 47쪽.

48) 성주현, 「평택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3·1운동 90주년 기념)평택지역 3·1운동 재조명 학술회의』(평택문화원 주최, 2009. 4. 17), 16쪽.

49) 북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날짜는 자료에 따라 다른데, 성주현은 3월 31일로 보았다. 성주현, 「앞의 논문」(2009), 18쪽.

50) 김방, 「평택지역의 3·1독립만세운동」, 『기억과 전승』 2008 평택항일독립운동세미나(평택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사단법인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주최, 2011. 6. 1), 13쪽 : 성주현, 「앞의 논문」(2009), 18~19쪽 : 김정인·이정은, 『국내 3·1운동-중부북부』 I(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1), 95쪽.

51) 「3·1운동의 회고와 정국 사관(私觀)」, 『신천지』(1949년 3월호) [『選集』7, 137쪽].

52) 海公 申翼熙(1894. 6. 9~1956. 5. 5)는 경기도 광주 출생으로, 1912년 와세다(早稻田) 대학 정치경제학부

도 傳聞하였다. “이승만(李承晩) 박용만(朴容萬)씨 등이 <조선>민족을 대표해서 국제회합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리고 “국내의 인심으로는 청년 및 정객 등을 중심으로 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킬 의론이 점점 익어”가면서 고종의 국상을 계기로 ‘대중적 운동’이 일어날 계획도 알고 있었다.⁵³⁾

이처럼 안재홍은 낙향해 있으면서도 “三一運動의 大計劃이 進行 斷行된” 과정을 꽤나 상세히 전해 들었다. 여기에는 “最初의 計劃은 당시의 三十三人보다도 상당히 다른 성격의 諸人物이 登場할 줄로 謀議되었던 것이나, 결국은 孫義庵을 筆頭로 주로 天道敎와 基督教·佛敎 등 三敎의 代表로 構成”된 과정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안재홍은 “最初의 獨立宣言 發表와 示威運動 計劃에는 政界의 巨頭들을 망라”키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內面事情 있어” 손병희가 “그 筆頭가 되고 三十三人의 諸人物이 網羅케 된 것”, 송진우가 48인의 하나였던 사실 등⁵⁴⁾ 3·1민족운동의 초기 조직화 과정을 소상히 전문하고 있었다.

4. 대한민국청년외교단 활동

안재홍이 서울로 올라온 때는 1919년 4월이었다. 이때 그가 상경한 목적은 언론기관을 만들어 민족사상을 고취하면서 정치운동을 전개하려는 데 있었다. 당장 언론기관을 만들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5월경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연결되었고, 이의 자매단체인 대한민국애국부인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일을 겸해 보면서, 신문사 자금을 모집하려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으로는 함경북도 회령부터, 남으로는 부산·군산까지 지부를 설치하여 비밀연락을 꾀하는 도중 1919년 11월 피검되었다.⁵⁵⁾ 안재홍은 만세 시위를 주도

에 입학하였다. 안재홍이 1911년 9월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하였으니, 신익희·안재홍은 같은 학교 같은 학부의 동창생이었다. 신익희는 宋鎮禹·文一平安在鴻 등과 협의하여, 1912년 10월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학우회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고, 이 단체의 총무·평의회 의장·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기관지 『學之光』의 편집 겸 발행인도 맡아 활동하였다. 안재홍은 1914년 여름, 신익희는 1917년 각각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안재홍·신익희 두 사람의 인연은 이때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1918년 6월경 국내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알려지자, 신익희는 崔麟·崔南善·宋鎮禹 등과 독립운동 계획을 비밀리에 논의한 끝에, 같은해 11월 국외의 독립운동 지도자들과 상·연락할 사명을 띠고 해외로 나갔다가, 3·1민족운동 발발 직후 귀국하였다. 그는 3월 1일 평양을 지나면서 시위운동을 목격하였고, 곧 서울에서 대규모 만세시위를 계획하여 3월 5일 남대문역 앞에서 서울의 제2차 독립만세시위를 촉발시켰다. 이로써 일경의 주목을 받자, 신익희는 3월 14일 농사꾼 차림으로 용산을 빠져 나와 중국으로 망명하였으며, 3월 19일 상해에 도착하여 독립운동의 중심 기관으로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데 적극 참여하였다. 4월 10월 신익희는 경기도 선출위원으로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여 趙素昂·李光洙 등과 함께 「임시헌장」 기초 심사위원으로 활약하였다.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조각이 이루어지자, 그는 초대 내무차장 겸 내무총장 서리로 선임되었고, 이후 내무총장 안창호(6월 28일 취임)를 도와 국내 행정조직망으로 연통제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 이 시기 신익희의 활동은 신창현, 『위대한 한국인 해공 신익희』(연봉, 1996. 7), 36~49쪽 ; 김용달, 「신익희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건국60주년 기념학술대회) 대한민국정부수립과 그 지도자들』(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주최, 2008. 11. 26), 50~55쪽 을 참조. 3·1민족운동이 일어나기 전후 신익희는 국내의를 동분서주하며 운동의 중심에서 활약하였고, 안재홍은 이러한 신익희를 통하여 국내외의 상황을 접하였다.

53) 앞의 「成熟한 機運에 點火」, 『漢城日報』(1946. 3. 2).

54) 「政治指導者로서의 孫秉熙氏」(1949. 3), 『選集』4, 213~215쪽.

55) 앞의 「成熟한 機運에 點火」, 『漢城日報』(1946. 3. 2).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사건은 1919년 10월 상해임시정부와 연락하여 독립운동자금에 충당하려고 安祐璫 등이 주도한 중국지폐위조 사건으로 발각되었다. 일경은 위조지폐 관계자의 소재를 수사하던 중 첩자를 통하여 청년외교단의 지부장 신임장·금전영수증·한국국치기념경고문 등의 다수 문서를 발견·조사하였고 1917년 12월 11일 사건을 송치하였다. 「獨立資金充當 支那紙幣偽造事

하는 형태가 아니라, 3·1정신의 대의를 계승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 가입하여 이를 주도하였다.

안재홍은 자신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가리켜 “제2선에서 약간의 潛行 운동을 한 것”으로 표현하였는데,⁵⁶⁾ 이는 매우 적절한 자기 규정이었다. 1919년 4월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은 이를 지원할 목적의 비밀결사로 조직되었다. 안재홍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임시정부의 ‘제2선’에 섰으며,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비밀결사였으므로 ‘잠행 운동’임도 분명하였다. 단 ‘약간’이라는 謙辭와 달리, 안재홍이 이를 주도·지도하였으며, 이 때문에 3년의 옥고를 치르는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운동은 그의 항일운동 가운데 유일한 비밀결사운동이었다.

안재홍은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비밀결사였으며, 자신이 이를 ‘지도’하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1919년 8월경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제출한 「建議書」를 가리켜, “당시 내가 지도하고 있던 秘密結社「大韓青年外交團」의 名義로써…”⁵⁷⁾라고 표현하였다. 뒤에 보겠지만, 실지 「건의서」는 안재홍·이병철 두 사람의 명의로 제출하였는데, 안창호의 회답은 안재홍 한 사람의 명의 앞으로 왔음을 보면, 이 「건의서」의 작성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의 활동을 안재홍이 지도하였음은 분명하다. 비밀결사인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은, 趙素昂이 국제사회를 향하여 벌이는 외교활동을 후원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나아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라는 조직의 명칭에 그대로 담겨 있다.

안재홍은 3·1민족운동이 일어난 뒤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조각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전해 듣고 있었다. “一九一九年 己未運動 일어난 후 上海에 臨時政府가 성립되었는데, 呂運亨氏는 外交部次長이라고 傳하여 왔었다. 당시 趙素昂씨는 파리講和會議에 金奎植博士를 補佐키 위하여 갔었고, 申翼熙·尹顯振(故) 제씨 모두 各部에 次長이 되어 이 青年部隊들이 한참 勳을 들날린다고 하는데, …”⁵⁸⁾라는 회고를 보면, 당시 그는 상해임시정부의 활동상 등을 꽤나 상세히 알았던 듯하다. 더욱이 그는 여운형·김규식·신익희 등의 ‘청년부대’의 활동에 자극을 받았으며, 이것이 조직 이름에 ‘청년’을 붙인 이유였으며, 조소앙이 김규식을 ‘보좌’하기 위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았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외교단’이라 명하였음이 분명하다.

1919년 4월 조소앙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조직하는 데 진력하였다.⁵⁹⁾ 그가 “우리는 議政

件」·「大韓民國青年外交團及愛國婦人會事件」, 앞의 『高等警察要史』(1934), 190~191쪽.

56) 「제목 미확인」, 『민주조선』(1948. 4) [천관우, 「앞의 논문」, 221쪽에서 다시 인용].

57) 「夢陽 呂運亨씨의 追憶」(1947. 9), 『選集』2, 200쪽.

58) 「夢陽 呂運亨씨의 追憶」(1947. 9), 『選集』2, 199쪽. “그해(1919년 : 인용자) 가을이 되어, 呂運亨씨는 예의 日本行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늦게야 투옥되었다.”는 회고를 보면, 안재홍은 1919년 가을 무렵, 여운형의 일본행을 둘러싼 논란도 전해 듣고 있었다. “그런데 夢陽이 日本에 건너가자마자, 나는 그해 十一月 二七日로써” 검거되었다는 회고도 정확하다. 여운형이 張德秀·崔謹愚·申尙玩 3인을 동반하여 일본에 머문 기간은 19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였다. 이 일본행을 둘러싸고 상해의 임시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일었는데, 이 해 8~9월부터 일제는 여운형을 포섭·귀순시키려는 공작을 본격 진행하였으므로, 여운형의 일본행이 오해를 불러올 여지도 있었다. 정병준, 『몽양 여운형 평전』(한울, 1995. 6), 39~43쪽.

59) 이하 조소앙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활동은 김인식, 『광복전후 국가건설론』(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

院을 組織하고 臨時政府를 組織하고 다시 臨時憲章을 만드는 데 세 밤을 뜬 눈으로 새웠으나 조금도 疲勞를 느끼지 않았다.”고 ‘當時의 光景’을 회고하였듯이,⁶⁰⁾ 그는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중심에 서 있었다. 조소앙은 4월 10일 열린 ‘29인 회의’를 임시의정원 제1차 회의로 이어나가며,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룩함으로써 한국사에 한 획을 긋는 과업을 주도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탄생시킨 이 회의의 벽두에서, 조소앙이 회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 칭하자고 제안하여 가결되었으며,⁶¹⁾ 이로써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 되었다. 또 그는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4. 11)의 심사위원,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1919. 4. 25)을 제정하는 기초위원으로 참여하여⁶²⁾ 임시정부의 뼈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조소앙은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건너가 2년 동안 외교 활동에 노력을 쏟았다. 1919년 8월 그는 스위스에서 36개 나라의 대표가 모여 개최한 국제 사회당 대회에 출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보고하고,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사회당이 국회에서 성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다수의 압도로 통과된 일은 중요한 외교 성과이었다.⁶³⁾ 이러한 외교활동으로 이후 그는 임시정부에서 외교 방면의 일을 주되게 관장하였다.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은 당장은 이와 같은 조소앙의 외교활동을 지원할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안재홍은 조소앙을 김규식의 ‘보좌’로 인식하였는데,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은 조소앙의 활동을 지원하는 현안보다 더 큰 범주에서 임시정부 청년부대의 외교활동을 지원함이 목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1919년 4월 상해에서 趙庸周(조소앙의 동생)·延秉昊·宋世浩 등이 외교론의 독립방략에 따라 독립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를 추진하다가, 국내의 李秉徹 등과 연결하여 이 해 5월 서울에서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을 결성하였다.⁶⁴⁾ 조소앙이 유럽으로 떠나는 때가 1919년 5월이었으므로,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국내에 결성되는 시기는 이와 일치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이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단체명의 서두로 뽑았다.

조용주·연병호·송세호·이병철 4인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란 비밀결사를 발의한 목적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일반 조선인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상해임시정부의 운동을 응원하며, 또 세계 각국의 동정을 구하는 외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특파원을 파견하여 조선독립을 요구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있었다. 이들은 운동자금으로 1600원을 각출하는

동사연구소, 2008. 8), 58~59쪽.

60) 「3·1運動과 나」, 『自由新聞』(1946. 2. 26) [三均學會 編, 『素昂先生文集』下(엠틀사, 1979. 7), 67~68쪽].

61) 4월 10일 회의 벽두에 회의 명칭을 ‘臨時議政院’이라 칭하자는 조소앙의 동기가 申錫雨의 再請으로 가결되었다. 李喆珪 編, 『臨時議政院紀事錄』,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4. 9), 39쪽.

62) 앞의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41~42쪽. 4월 19일 조소앙은 國務員 秘書長에 당선되었으나 4월 22일 사직하고 국무원 위원에 선임되었다. 『위의 책』, 41-43쪽.

63) 趙芝蕪, 『韓國民族運動史』,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篇, 『韓國文化史大系』I(高大 民族文化研究所出版部, 1964. 11), 672~673쪽.

64)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는 시기는 자료에 따라 다르나, 크게 1919년 5월과 6월로 나눌 수 있으며, 당시 중국 상해 독립운동의 동태를 볼 때 5월설이 유력하다. 장석홍은 5월 상순으로 추정하였다. 張錫興, 『大韓民國青年外交團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2집(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11), 270-275쪽.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의 전체상은 張錫興, 『위의 논문』을 참조.

한편, 단원을 모집·규합하는 데 노력하여 “동지 중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배일사상이 가장 강고한 안재홍을 총무의 지위에 추천했다.⁶⁵⁾ 이를 보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의 활동은 독립사상의 고취, 상해임시정부 응원, 외교활동으로 독립 성취라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실제 이렇게 운동을 추진하였다.⁶⁶⁾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은 결성 이후 서울에 中央部를 설치하고, 국내와 상하이 등지에 支部를 두고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중앙부는 총무(안재홍·李秉徹), 외교부장(金演祐)·재무부장(金泰珪)·편집국장(李儀景)·幹事長(金鴻植)·외교원(조용주·연병호·柳興植)·외교특파원(李鍾郁·조소앙)·특별단원(鄭樂倫)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조직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안재홍은 이병철과 함께 중앙부의 총무가 되었는데, 여기서 보듯이 중앙부의 체제는 단장이나 총재 같은 단체장의 자리를 비워두고, 총무 중심의 체계로 구성되었음이 특징이다. 2인 총무제 아래에서 안재홍은 강령·규칙 등 운영의 기초가 되는 문안 작성의 일을 맡았고, 이병철은 주로 자금과 조직을 담당하였다.⁶⁷⁾ 안재홍은 총무로서 「國恥紀念警告文」·「外交時報」 등을 다량 인쇄하여 비밀리에 배포하는 등 활동이 자못 컸다.⁶⁸⁾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외교선전활동에 비중을 두고 활동하였음은 해외지부로 상해지부(지부장 : 宋世浩)를 설치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이 단체의 성격은 안재홍이 주필이 되어 작성한 뒤,⁶⁹⁾ 1919년 8월 상순⁷⁰⁾ 안재홍·이병철 양 총무의 명의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앞으로 보낸 6개 항의 「건의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건의서」에 대하여 임시정부 국무총리 대리 安昌浩는 건의를 嘉納한다는 回答을 같은해 9월 8

65) 앞의 『高等警察要史』, 191쪽.

66) 이 점에서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을 “外交活動을 독립운동의 행동 지침으로 표방하고 청년이 주체가 되어 결성한 국내독립운동 단체”, “外交活動을 위한 전문단체의 성격을 띠고 결성”되었다고 이해하여, 이 단체를 ‘외교활동 표방’에 한정시키는 시각 [張錫興, 「앞의 논문」, 267·280·269쪽]은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운동의 특징을 한쪽 면에서 강조하였다고 보인다. 이 단체는 국내에서는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밖으로 상해임시정부를 후원하고, 상해임시정부와 연계하거나 또는 독자 노력으로 외교활동을 통한 독립을 추구하였다.

67) 張錫興, 「앞의 논문」, 9~10쪽.

68)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下篇, 120쪽 [『朴殷植全書』上(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1975. 8), 628쪽. 「국치기념경고문」은 1919년 8월 29일 日韓併合紀念日을 기하여 독립시위운동을 시도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의 편집국장 李儀景(『高等警察要史』에는 編輯員으로 되어 있다)이 團員 羅昌憲과 함께 작성하였고, 단원 安祐瑋이 경고문 300매를 인쇄하여 경성 종로통에서 뿌렸다.이 때문에 29·30일에 폐제한 가게도 많았다. 「외교시보」도 한국민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할 목적으로, 이의경이 나창현과 함께 작성하여 안우선에게 300매를 인쇄케 한 뒤 1919년 9월 2일 경성부 종로통에 살포하였다. 『高等警察要史』, 191쪽. 이를 보면 중국위조지폐 사건의 주도자였던 안우선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의 단원이었고, 그가 전단문을 인쇄한 사실을 보면, 이 위조지폐 사건도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관계 있었다고 보인다.

69) 일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병철·안재홍·연병호·송세호·조용주 등은 국제연맹회의에 특파원을 파견하여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 열강이 원조승인케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건의서를 상해임시정부에 제출하기로 협의한 뒤에 안재홍이 주필이 되어 6개 조의 건의서를 작성하였다. 1919년 8월 안재홍·이병철 명의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 李承晚 앞으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상해임시정부 통신원 李鍾郁으로 하여금 이를 휴대케 하여 보냈고, 같은해 9월 8일 국무총리(대리) 안창호에게서 건의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서한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달에 趙鏞殷을 파리에 파견하게 되었다. 『高等警察要史』, 191쪽. 단 여기서 조소앙이 자신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의 ‘외교특파원’임을 알았는지, 또 임시정부에서 조소앙을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의 ‘외교특파원’ 자격으로 파악하였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70) 안재홍이 여운형을 회고하는 글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건의서」가 작성된 시기는 여운형의 일본행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던 1919년 가을 무렵이었으므로, 이보다 앞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는 회고를 참조하면, 이 「건의서」가 ‘8월 상순’에 작성되었다는 일제 관련 자료가 맞다고 생각한다. 「青年外交團의 被檢記錄」(1919. 12. 3)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三(國史編纂委員會, 1967. 12), 502~503쪽] : 『高等警察要史』, 191쪽.

일자로 보내왔으며, 같은달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명에 따라 외교특파원으로서 파리에 파견되었다.⁷¹⁾ 「건의서」의 작성·전달은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이었는데, 이를 안재홍이 주필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시기의 그의 운동노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항에서 “理想과主義의大旗幟下에 各派의 大替 協同하여 萬一의 感情的 衝動의 弊害가 없도록 全力할 것”이라 하여, 이상주의에 입각한 ‘협동’을 대의로 천명하였다. 이어 “內閣各部總長은 上海에 集中하여 政務의 統一을 期할 것”(2항)을 촉구한 뒤, 3개 항에 걸쳐 외교활동의 방침을 건의하는 등 독립운동의 구체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列國政府에 直接 外交員을 特派하여 外交事務를 急進의 擴張케 할 것”(3항), “日本政府에 外交員을 派遣하여 國家의 獨立을 正面으로 要求할 것”(4항), “適材를 廣聚하여 輿論을 喚起하기 爲하여 趙鏞股君에게 至急 信任狀을 交付하여 聯盟會議에 派遣하여 外交事務를 執行케 할 것”(6항) 등이었다.⁷²⁾

여기서 위의 4항과 여운형의 일본행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다. 뒷날 안재홍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건의서」의 4항은 “日本에는 직접 代表를 파견하여 정면으로 韓國獨立의 緊切한 政治性을 力說할 것”이었다.⁷³⁾ 당시 조선총독부 측은 여운형이 일본을 방문한 사실을, 임시정부 측이 이 「건의서」에 반응한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여운형이 조선을 거쳐 상해로 귀환하려던 애초의 계획—일본 당국과도 사전에 합의한—이 무산되고, 상해로 바로 귀환한 이유는, 조선총독부가 격렬하게 반발하였기 때문이다.⁷⁴⁾ 그러나 안재홍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건의서」의 4항은 여운형의 일본행을 직접 가리켜서 건의한 내용이 아니었다. 이는 “이 日本行에 관하여는 事實上의 關係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터이다.”고 술회한 대목 뒤에, 4항의 건의 내용을 언급한 문맥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의 관계’란 말은, 여운형의 일본행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외교단의 건의와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키며, 4항의 건의가 여운형의 일본행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안재홍은 여운형이 일본으로 간 뒤인 11월 27일 대한민국의 청년외교단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大邱地方法院 公判廳에서 河村 검사가 이 「건의서」 4항을 여운형의 일본행과 연관시켜 ‘峻烈한 論告 거리’를 삼았지만, 이와는 관련이 없었다.⁷⁵⁾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바는,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하는 조선민족의 대표를 지원하고 국제사회당 대회에 참석할 임무를 띠고 유럽으로 출발할 때의 조소앙의 자격 문제이다. 이때 그가 대한민국의 청년외교단 외교특파원의 자격으로 출발하였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⁷⁶⁾ 어쨌든 청년외교단의 조직체계에서 확인하면, 조소앙을 ‘외교특파원’으로 선정하여

71) 이 「建議書」는 당시 임시정부 연락원으로 서울에 와 있던 李鍾郁에게 주어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02쪽 : 『高等警察要史』, 191쪽. 이 「건의서」의 내용과 안창호의 회답은 앞의 『靑年外交團의 被檢記錄』(1919. 12. 3) [國史編纂委員會, 『위의 책』, 502~503쪽] 을 참조. 조소앙이 상하이로 떠난 때는 1919년 5월이었고, 같은해 8월 6일에는 이미 李灌鎔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 준비회의에 참가하여 한국독립에 관한 3개 조의 결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72) 5항에서는 “內外의 策應을 緊密且專一케 하기 爲하여 政府로부터 人員을 派遣하여 內地 各團體及 宗派間의 代表者와 協議한 後 京城에 交通本部를 設置하여 一切 策動의 中樞機關을 作成케 할 것”을 건의하였다.

73) 『夢陽 呂運亨씨의 追憶』(1947. 9), 『選集』2, 199쪽.

74) 정병준, 『앞의 책』, 42~43쪽.

75) 이 점에서 이 「건의서」는 여운형의 일본행이 논란을 일으키는 1919년 가을 전에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실하다.

76) 조소앙이 유럽으로 출발한 1919년 5월과, 위 건의안에 보이는 8월 양자 사이에 시차가 있다. 이를 인정하면

유럽 외교를 위임하였다. 직제상으로 보더라도, 조소앙은 총무나 외교부장의 지도·위임에 따라 유럽외교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조소앙이 대한민국의 청년외교단에게서 직접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를 국제연맹에 외교특파원으로 보내자는 대한민국의 청년외교단의 건의안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서 '가납'되었음을 볼 때, 조소앙의 자격 문제와 별도로 대한민국의 청년외교단의 의견이 일정하게 반영되었음은 분명하다.⁷⁷⁾

대한민국의 청년외교단의 중심인물인 조용주·연병호·안재홍·송세호·이병철 등은 1919년 9월, 청년외교단과 같은 소규모 단체로는 독립운동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함께 하는 국내 각지의 독립운동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칙을 정하여 조직을 확장·개편하고, 명칭을 '倍達青年團'으로 개칭하기로 결정하였다.⁷⁸⁾ 이에 따라 9월 이후 강령·규칙 등을 안재홍이 주필이 되어 입안하기로 결정하고,⁷⁹⁾ 10월 하순경에 조직 개편의 준비에 착수하였는데, 11월 말에 청년외교단의 조직이 발각되어 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⁸⁰⁾ 안재홍이 검거된 날은 11월 27일이었다. '간첩'이 밀고하여 임시정부에 보낸 「건의서」를 비롯하여 일체의 서류가 함께 발각되었다.⁸¹⁾

청년외교단은 大韓民國愛國婦人會와 서로 연락하여 활동하였으므로 두 조직은 함께 발각되어 같은 사건으로 검거되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만 80명이었는데,⁸²⁾ 이병철(애국부인회의 고문이기도 함)·안재홍 등 10인과 대한민국의 애국부인회의 김마리아 등이 체포되었고,⁸³⁾ 재판에 회부된 주동자 25명 가운데 19명이 20살 이상 30살 이하의 '꽃 같은' 나이였다.⁸⁴⁾ 청년외교단의 혐의는 ①독립사상을 선전하고 유지인사를 규합하여 자금 모집에 노력하는 한편, ②조용주·李鍾郁을 임시정부에 파견하여 연락을 취하고 외교시보와 기타 조선독립에 관한 불온문서를 많이 인쇄하여 이것을 널리 조선 안에 배부하였으며, ③독립운동비 550원과 독립에 관한 건의서를 임시정부에 보냈고 임시정부에서 조직한 대한민국 적십자회에 입회하여 임시정부를 원조하였다는 데 있었다.⁸⁵⁾

청년외교단·애국부인회 사건으로 안재홍은 1919년 11월 경상북도 警務局 제3부에 검거되었고,⁸⁶⁾ 1921년 5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병철과 함께 징역 3년(다른 사람은 각각 2년 6

서도, 조소앙을 유럽으로 파견한 단체가 자료상으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조소앙이 유럽으로 출발할 때의 자격이 '대한민국의 청년외교단 외교특파원'이었다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權寧建, 「趙素昂의 三均主義論」(漢陽大學校 大學院 政治外交學科 博士學位論文, 1985. 12), 96~98쪽. 앞의 『高等警察要史』, 191쪽에서는 조소앙이 파리에 파견된 사유가 안창호가 앞의 「건의서」를 받아들인 결과로 파악하였다.

77) 9월 8일자 회답은 '青年外交團 安在鴻 貴下'의 형식으로 안재홍 앞으로 '建議를 嘉納함'이라고 답하며, 건의안에 일일이 답하였다. 조소앙 특파원 건은 "其六의 趙鏞殷를 任命하는 것은 特使 金奎植氏의 意向에 따라 定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당시 안재홍이 조소앙을 김규식의 '보좌'로 인지하였음은, 안재홍이 傳聞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정확하였음을 보여준다.

78) 『高等警察要史』, 191쪽에는 이 단체의 이름을 '大達青年團'으로 기록하였으나, 倍達青年黨이 옳은 듯하다. 張錫興, 「앞의 논문」, 281쪽.

79) 『高等警察要史』, 191쪽.

80) 張錫興, 「앞의 논문」, 14~15쪽.

81) 「夢陽 呂運亨씨의 追憶」(1947. 9), 『選集』2, 199쪽.

82)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05쪽.

83) 朴殷植, 『앞의 책』, 120쪽 [『朴殷植全書』上, 628쪽].

84) 이병철 22세, 안재홍 29세, 김마리아 26세.

85) 「愛國婦人會 事件-예신을 맞치고 공판에 부쳐」, 『東亞日報』(1920. 4. 24).

86) 「夢陽 呂運亨씨의 追憶」(1947. 9), 『選集』2, 199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임시정부사』제4

개월에서 2년까지의 징역을 선고받았다)을 받아⁸⁷⁾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뒤 1922년 32세의 나이로 출옥하였다.⁸⁸⁾ 이것이 그에게는 9차례 7년 3개월의 고난의 시작이었다.⁸⁹⁾

5. 3·1민족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계기성·법통성 인식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안재홍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 참여한 이면에는, 3·1민족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기성·연속성을 갖는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인정·주장하는 논리로 이어졌다. 그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 활동을 3·1민족운동의 연속, 좀더 근원에서 보면 3·1민족운동 자체로 등치시키는 역사의식을 지니고 이에 참여하였다. 식민지 치하의 여건이 3·1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계기성·동질성을 규정하는 표현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기 양자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운동의 목적성도 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미 이때부터 안재홍은 3·1민족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이의 필연의 연관성을 역사의식으로 지니고 있었다. 이는 8·15해방 후 그의 신민족주의 국가건설운동의 과정에서 발현되어 매우 중요한 정치노선을 이루었다. 8·15해방 뒤 안재홍은 중경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건국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重慶臨時政府迎立補強’론을 주장하였고, 신생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였으며, 이 법통성은 3·1민족운동에서 연원한다고 강조하였다.⁹⁰⁾ 이 점에서 안재홍의 대한민국청년외교단 활동과 이로 인한 첫 번째 투옥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된 사실은, 8·15해방 뒤 그의 국가건설운동의 방향을 예시하는 출발이었다.

이미 보았듯이, 안재홍은 국내에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다. 3·1민족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양심에 거리낌이 남아있던 그가,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 가담해서 활동한 사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한 전제 위에서 출발하였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단체명의 서두로 뽑은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재홍은 청년외교단 활동을 3·1민족운동 자체 또는 이의 연장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관련시켜 인식하였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도 3·1민족운동이었다는 역사의식을 동반하였다. 그가 주로 사용한 ‘기미운동’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역사의식을

권(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12), 450쪽.

87) 國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03쪽.

88) 대구 감옥에 재감 중이었던 안재홍은 1922년 6월 9일에 가출옥되어 진위군의 자택으로 향하였다. 「安在鴻氏出獄-구일 대구감옥에서」, 『東亞日報』(1922. 6. 13). 안재홍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그가 청년외교단 사건으로 피체된 날이 1919년 11월 27일이었으니, 이 사건으로 수감된 기간은 정확히 30개월 보름이 조금 넘는다. 그렇다면 그가 이 사건으로 미결 기결 합하여 ‘三十數朔’ 대구 감옥’에 있었다는 회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30개월 보름 정도였다.

89) 첫 옥고에서 안재홍은 평생 고질이 되어버린 병을 얻었다. 그는 대구로 압송된 뒤 치고 짓밟고 때리는 포악한 고문을 당하여 등뼈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다. 金富禮, 「기도의 나날 속에」(미공개원고) [千寬宇, 「앞의 논문」, 221쪽에서 다시 인용]. 또 안재홍은 이때의 고문으로 병을 얻어, 날이 좀 추우면 무릎이 시리다고 주먹으로 다리를 쳤으며, 원고를 쓰다가도 생각이 막히면 버럭 소리를 질러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이도 감옥에서 얻은 울화증의 소치였다. 「金乙漢의 회고」, 平洲李昇馥先生 望九頌壽紀念會, 『三千百日紅-平洲 李昇馥先生八旬記』(人物研究所, 1974. 7), 142쪽.

90) 안재홍의 중경임시정부영립보강론과 운동은 김인식, 『안재홍의 신국가건설운동 1945~1948』(선인, 2005. 1)의 제2·3장을 참조.

포괄하고 있다. 나아가 안재홍에게 대한민국정부수립도 3·1정신의 실현이었다. 8·15해방 후 그는 3·1민족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계기성과 법통성을 중시하였는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은 당위론이자 역사의 요청이었다. 이는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국가건설론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의식의 일부였다.

안재홍은 3·1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다시 신생 대한민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몽양 여운형을 추억하는 글에서 “一九一九年 己未運動 일어난 후 上海에 臨時政府가 성립되었는데,...”⁹¹⁾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단순하게 시간의 앞뒤 관계를 나타내는 서술이 아니었다. 그는 3·1민족운동이 상해임시정부 수립을 가져왔다는 인과관계를 지적하여, 3·1민족운동과 상해임시정부수립의 계기성·동질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8·15해방 후 안재홍은 3·1민족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법통성을 신국가건설운동의 전거로 내세웠다. 그는 3·1민족운동의 가시화된 성과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들었다. 그는 3·1민족운동의 지속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 투쟁이 ‘一時의 示威’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獨立運動의 總本營으로서의 臨時政府’를 수립하였고,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을 요청하는 사절을 파견하고, 서로군정서·북로군정서 등이 설치되어 압록강을 넘나들며 투쟁하였고, 이는 청산리전투의 전과로 이어지는 등 ‘영속하는 民族鬪爭의 과업’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을 보였다.⁹²⁾

8·15해방 후 안재홍은 중경임시정부를 건국정부로 추대하려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임시정부를 지지함이, 3·1민족운동에 근거한 민족해방투쟁의 전통이며 멀리 민족사의 요청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임정’ 지지는 3·1운동 이래 38년에 수십만의 동원과 몇 만의 유혈에 의한 민족해방투쟁의 전통을 살리고자 함이니 민족사상 정대(正大)한 요청이요, 자연인에 향해서 일편 사심(私心)이 섞이지 않았다.”⁹³⁾ 안재홍은 이와 같이 단언할 만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운동을 전제하여 “三一運動 이래 二十七年 동안 民族解放運動의 전통은 누가 新政府를 조직하든지 당연 健承될 바”임을 강조하였다.⁹⁴⁾ 나아가 “己未運動 이래 民族運動의 法統을 吶號하는 重慶臨時政府”이라 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기미운동’에서 연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⁹⁵⁾

안재홍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자체가 ‘3·1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데에서 성립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신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떠메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大韓民國의 名義는 三·一精神을 물려받고 祖國에서 國民大會의 決議를 받들어 오는 上海臨政의 法通을 계승하는 意義에서 성립된 것이다. 南北統一과 適法한 國民總意를 새로 묻지 못하게 된 오늘날 서울에 樹立된 新政府가 大義에 연원하

91) 「夢陽 呂運亨씨의 追憶」(1947. 9), 『選集』2, 199쪽.
 92) 「三一精神과 民族大義」(1949. 3. 1), 『選集』2, 408쪽.
 93) 「3당 공동 성명」(1946. 1. 24), 『선집』7, 45쪽.
 94) 「建國救民運動의 高調」(1946. 2. 13), 『選集』2, 92쪽.
 95) 「民政長官을 辭任하고」(1948. 7), 『選集』2, 262쪽.

는 法統을 떠메어야 할 것은 論議를 모름짓지 않는다.⁹⁶⁾

안재홍은 신생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위 인용문에 이어, “그는 人民共和國에 상대하여 重慶臨政을 전면적 또는 最大의 지지를 하여 오던 八·一五 이래 民族主義 陣營 傳統의 精神이니, 그것이 三八線을 사이에 놓고 南北對立하는 오늘날 또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결론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중시함이 해방정국에서 민족주의진영의 정신·기반이었고, 이는 남북이 분단된 현재 북한에 앞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안재홍이 지적하였듯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역사의식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는 우익 계열의 공통된 정신이었다. 그가 ‘중경임정을 전면적 지지’라고 규정한 논리는 한국민주당이 주장한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론’을, ‘최대의 지지’라고 표현한 노선은 자신의 ‘중경임정영립보강론’을 각각 가리켰다. 논점의 실상을 따지면 양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지만, 민족주의를 자처하는 우익 세력들은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항하는 전략 또는 전술로 모두 중경임시정부를 정부로 추대하였다는 외양에서는 동일하였다.⁹⁷⁾ 한국민주당은 1945년 12월 말 들어 중경임시정부를 지지하는 형식 논리마저 철회한 반면,⁹⁸⁾ 안재홍은 좌우합작운동 시기 동안 임정법통론에 근거한 운동 방식을 보류하였지만,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앞두고 임시정부법통의 계승을 다시 강하게 주장하였다.

6. 맺음말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은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났고, 항쟁의 불길은 전국에 퍼졌으나, 안재홍은 개인사로 인하여 3·1민족운동의 선두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1917년 3월 조선산 직장려계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관헌의 압박을 받았고, 직장이었던 중앙학교의 學監에서 ‘放逐’당하여 실직 상태에 있었다. 그는 실의 속에서 시국대책을 생각하던 중이었으므로 선뜻 3·1민족운동의 전면에 나설 심경이 아니었으며, 또 ‘불온분자’로 찍히어 낙향하였던 터였으므로 그럴 여건도 되지 않았다.

그러던 차 1919년 3월 말경 안재홍은 향리 부근의 다소 높은 어느 봉우리에 올라, 인근의 마을 여러 곳에서 봉화 시위가 벌어짐을 목격하면서, “天地도 들썩거리는 듯한 獨立萬歲의 웅성곳은 아우성은, 문자 그대로 人民反抗이요 民族抗爭”임을 깨달았다. 그는 3·1민족운동의 광경을 최상급의 언어를 동원하여 찬탄하였는데, ‘독립만세의 웅성곳은 아우성’에서 민족 안의 민중, 나아가 민중의 민족성을 보았다. 안재홍에게 이 ‘아우성’은 ‘二千萬 總意’에 의거하였으므로 계급분열이 전혀 없었던 전민족이 일치단결한 민족항쟁이었다. 그는 3·1민

96) 「大韓民國 建設의 構想」(1948. 10. 掲載誌 不明), 『選集』2, 319쪽.

97) 자세한 점은 김인식, 「8·15해방 후 우익 계열의 ‘중경임시정부 추대론’」, 『韓國史學報』제20호(高麗史學會, 2005. 7)을 참조.

98) 金仁植, 「송진우-한국민주당의 ‘중경임시정부 절대지지론’」, 『한국근현대사연구』(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3), 148 ~ 149쪽.

족운동에서 민중이 자각하여 스스로 주체가 되어 나아가는 역사발전의 이상향을 보았고, 8·15해방 후에는 3·1정신을 신민족주의 이념의 原型으로 설정하였다. 한민족의 ‘아우성’에서 ‘視死如歸’의 정의감과 비감함을 확인한 그 자신도 ‘視死如歸’의 전기를 찾았고, 이전의 소극·방관의 자세를 털고 항쟁의 중심으로 뛰어 들었다.

안재홍은 3·1만세시위운동의 초기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청년의교단에 참여·활동함으로써 3·1민족운동을 이어갔다. 대한민국청년의교단은 국내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상해임시정부를 응원하며, 국외에서는 외교활동으로 독립을 성취한다는 세 가지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운동을 추진하였다. 안재홍은 이병철과 함께 대한민국청년의교단의 총무로서 이 단체를 지도하였는데, 그는 강령·규칙 등 운영의 기초가 되는 문안 작성의 일을 주로 맡았으며, 「국치기념경고문」, 「외교시보」 등을 다량 인쇄하여 비밀리에 배포하는 등 활동이 자못 컸다. 무엇보다도 1919년 8월 안재홍이 주필이 되어 작성하여 이병철과 공동 명의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낸 6개 항의 「건의서」는, 이 당시 안재홍의 운동노선을 알려주는 두드러진 활동이었다.

안재홍을 비롯한 대한민국청년의교단의 중심인물들은 1919년 9월, 주의를 함께 하는 국내 각지의 독립운동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칙을 정하여 ‘倍達靑年團’으로 조직을 확장·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강령·규칙 등을 안재홍이 주필이 되어 입안하기로 결정하고, 10월 하순경에 조직 개편의 준비에 착수하였는데, 11월 말에 대한민국청년의교단의 조직이 발각되어 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안재홍이 검거된 날은 11월 27일이었고, 이 사건으로 3년여의 옥고를 치른 뒤, 1922년 6월 9일 대구 감옥에서 출옥하였다. 혹심한 일제 지배하에 “전후 9차에 걸쳐 7년 3개월의 옥고”의 출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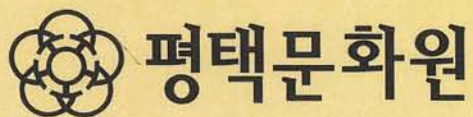
안재홍은 3·1민족운동을 ‘3·1운동’·‘3·1투쟁’으로 표현하면서도 ‘기미운동’이란 용어를 주되게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3·1민족운동을 만세시위운동에 한정시키지 않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과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까지를 포함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그는 만세시위운동에서 발전한 임시정부수립 운동, 나아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청년의교단의 활동도 ‘기미운동’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용어 규정은 중요한 역사의식을 담고 있다. 3·1민족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기성·연속성을 갖는다는 인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인정·주장하는 논리로 이어졌다.

8·15해방 후 안재홍은 3·1민족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법통성을 신국가건설운동의 전거로 내세웠고, 이는 중경임시정부를 건국정부로 추대하려는 重慶臨時政府迎立補強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는 3·1민족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계기성과 법통성을 중시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은 그에게는 당위이자 역사의 요청이었다.



사진설명>>

- 좌 - 1919년 3월 11일 평택역 만세시위를 주도한 주민들의 판결문
- 중 - 3.1운동 시 사용했던 국기
- 우 - 매일신보에 보도된 평택지역 독립만세운동 관련 기사



450-702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화 : (031) 655-2002 팩시밀리 : 654-8807
www.ptmunhwa.or.kr